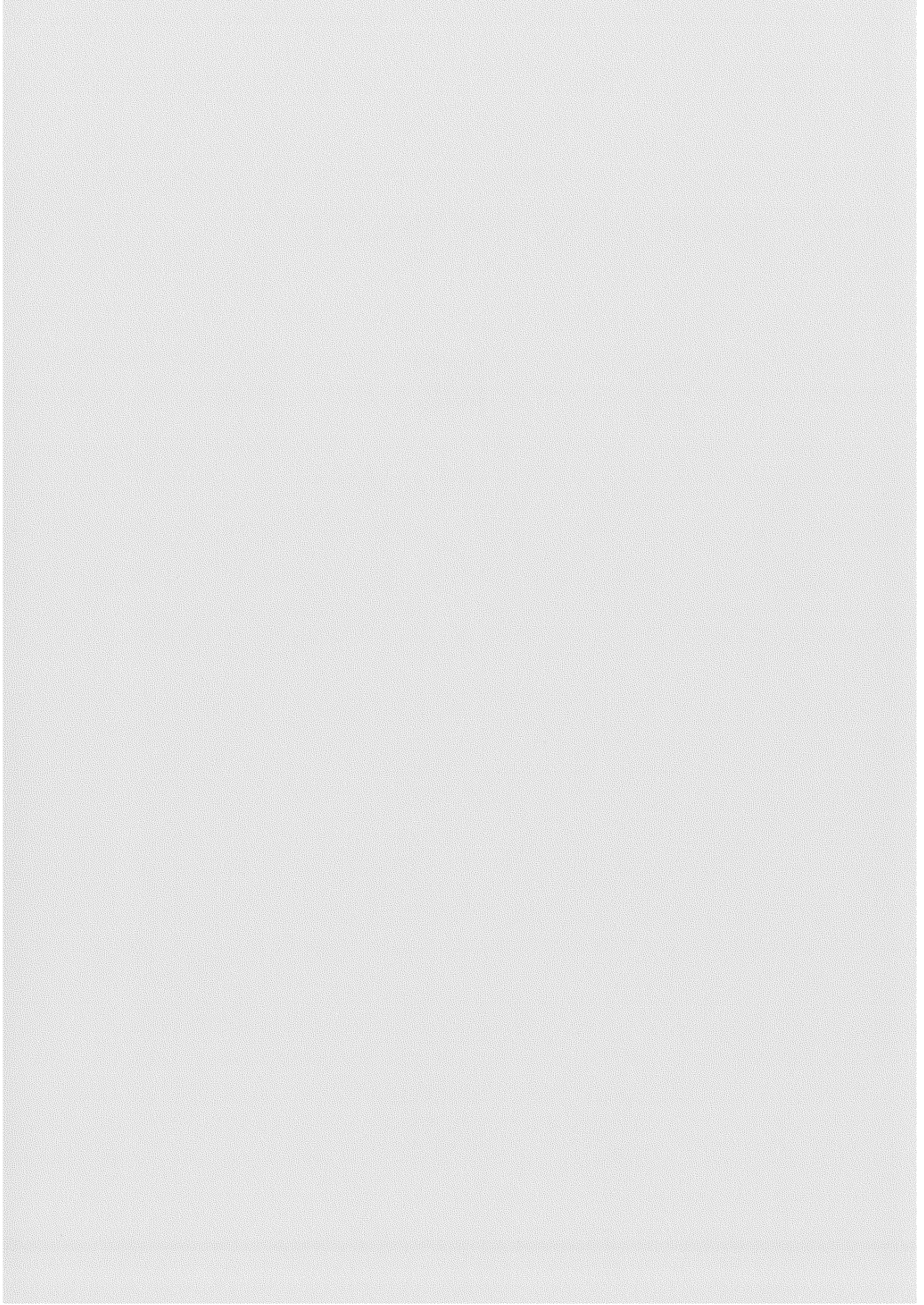


第1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4.2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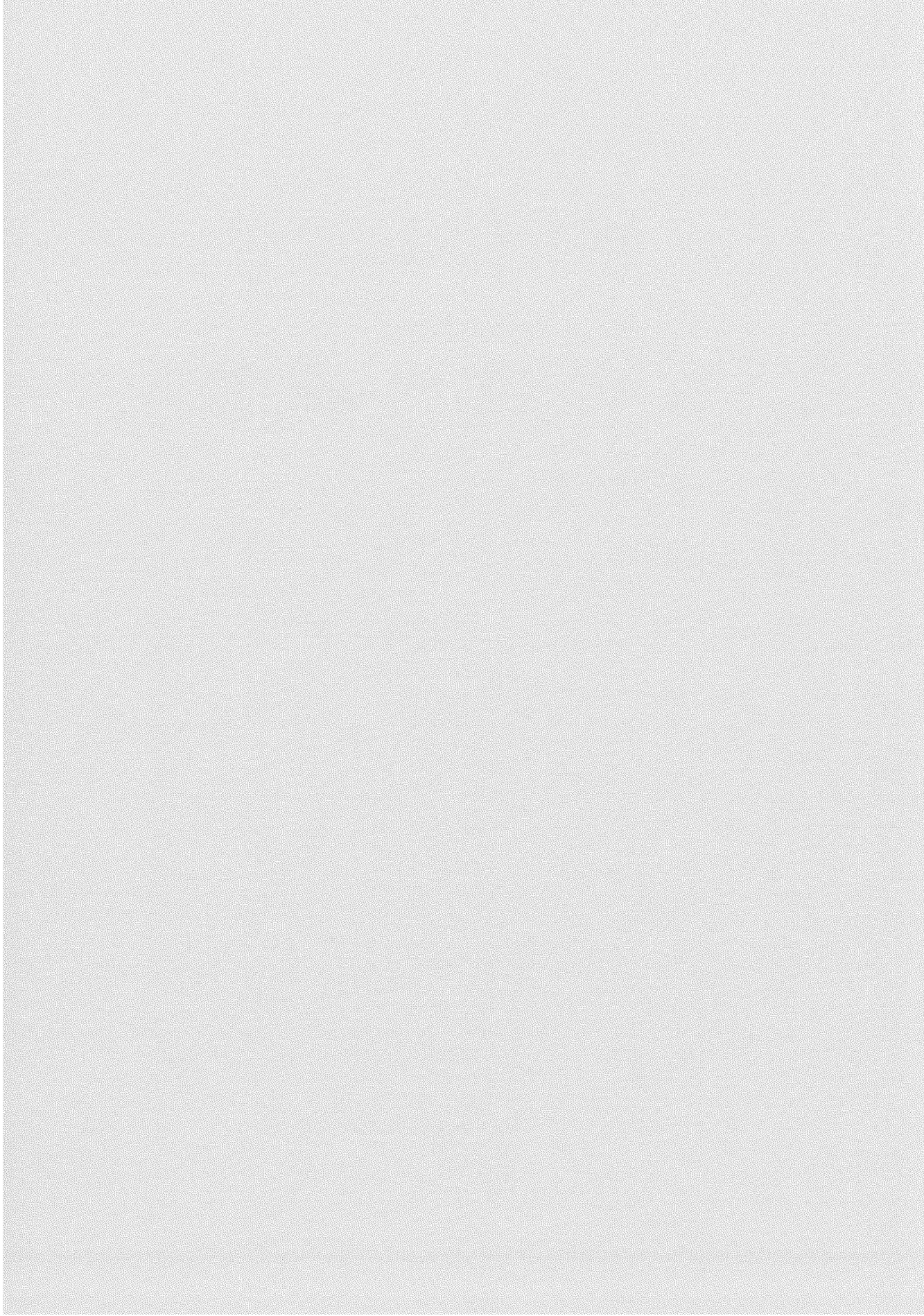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 |
|--|----|
| I. 개회식 | 3 |
| II.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
| III.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5 |
| IV. 부 록 | |
| 1. 의사일정안 | 21 |
|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23 |
|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1 |
|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43 |
| V. 별책부록 | |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1) | |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2) | |
|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3) |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2일 (월요일) 14시 00분

開會式順(第140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4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를 시작합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4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2일 (월요일) 14시 02분

議事日程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0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일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업무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차
 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 위
 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조일환 위원께서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
 로 통지해 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

다.

그리고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집행청에서 아직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 정식 의제로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감께서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예” 하고 말함)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유선규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북교육을 지켜봐 주시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조일환 교육위원님 외 여섯 분의 발의로 채택되어 집행청에 이송된,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교육감

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후임 교육감 보궐 선거가 다음 다음주 4월 30일로 결정되어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현 상태에서 부교육감 체제에서 지역교육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임 교육감이 취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06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와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와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와과장 조계환

의사와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4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 제2002-4호로 제140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
으며, 동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과 2002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신 김영학 진천교육장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은 동일자로 집행청
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
경계획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
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4시 08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
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
며,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
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
경계획안
 -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 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주 서원초등학교 외에 11개 교에 교실 및 화장실 등 1만 1천여㎡와 옹벽 등 공작물 4종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01년도 결산 잉여금 재원으로, 학교신설,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충북교육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68억 9,900만원에서 1,266억 2,580만원이 증액된 1조 135억 2,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695억 3,612만원,

비법정전입금으로 3억 5,600만원, 재산매각수입, 수업료 인상분,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564억 7,169만원,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비 등으로 2억 6,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에 808억 6,160만원, 공공도서관, 문화 및 평생교육 활동비로 2억 3,245만원, 급여 및 복지후생비로 277억 1,651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로 39억 4,771만원, 예비비로 138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139억 1,768만원과 2004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비의 20%로 218억 81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학년도 초·중학교의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자 135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117억 3,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에 증설되는 초·중·고등학교 340개 교실의 내부 비품구입비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 선택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53억 8,249만원과 부족되는 학교 화장실 증축비 등에 13억 1,647만원,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교사 개축, 난방 개선, 화장실 개조, 조도개선 사업 등에 140억 7,653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다목적 교실신축, 도서관 증축, 특별교실 증축 등에 38억 5,600만원, '79년도에 신축한 본관 외벽의 타일이 탈락되어 미관상 보기 흉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외벽 및 창호 보수에 12억 6,050만원과 지역교육청 및 지원기관 등 기타 시설비에 11억 7,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총 20억 5,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6억 1,396만원, 2002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함에 따라 증원된 교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3억 3,120만원, 당초 예산에 반영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기기 구입 및 자료입력 용역비 등에 2억 9,295만원,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리소스 자료 제작 보급에 3,305만원, 지식정보화 시대에 실업교

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실업계고 컴퓨터 교체비로 7억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교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재발간 등 교육과정 자료개발 보급비로 2억 7,264만원, 교육인적지원부 지정 지식정보화 사회학교 모형개발 연구학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7억 9,134만원, 심각해져 가는 흡연의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생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학년도 중학교 교과서 대금 인상분 및 2003학년도 중학교 교과서 무상 지원에 따른 선금분으로 3억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실습실 난방기 지원 등 과학교육진흥에 6,788만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학교급식 시설확대 및 급식운영 지원사업에 4억 2,160만원,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의 단결된 힘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선수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등 학교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4억 9,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로부터 지원된 도서 및 교재·교구 확충비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정비사업비 등에 6억 1,637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억 600만원과 교원복지 차원에서 대출이자 차액 보증을 위하여 1,173만원, 3학급 이하로 감축되는 중학교 교원 사무보조원 임용 지원비로 3,012만원, 교직원 인건비 인상 및 정원 증원분으로 259억 4,070만원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57억 701만원, 재해보상급여 및 대여장학금 부족분 등에 17억 7,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시설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3)
(끝에 실음)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 2)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

(14시 19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 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송진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께서 회의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보궐선거 등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제가 이 발언대에 자주 나와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공동 관심사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이나 저의 생각을 이 본회의장에서 집행청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제 발언이 어느 위원 입후보하신 분에게 지장을 드리거나 또는 제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혹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두에 말씀 올립니다.

친애하는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간부 여러분!

이번 불행히도 우리가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축복된 그런 선거라기 보다는 우리 교육가족의 대단히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나만치 특히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육가족들께서는 이 선거에 대해서 모조록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그리고 사회의 어느 선거보다도 모범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에 몇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벌써 고발 내지는 여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집행청에 유선으로 또는 직접 부교육감님을 면담하고 확인했던 바, 그동안 충분히 이런 것을 예상하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교육감님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대단히 미흡하게 미치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줄대기라든지 여타의 개인의 조그만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 충북교육을 다시 오명을 씌울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구를 하겠습니다.

얼마 이제 일주일 채 남지도 않은 선거기간에 공문서나 또는 각종 회의나 또는 언론이나 여러 측면을 통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중한 행정적인 조치를 촉구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학운위의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운위의 본래 구성은 학부모가 50%를 넘지 말아야 되고, 또 교원위원이 50%를 넘지 말고, 지역위원이 거기에 약 한 2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학운위 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교원위원이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요, 그 분의 이론이 여지가 있습니다.

직속 교육기관의 직원이나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나 또는 교원이 타 학교의 운영

위원으로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 이론으로 맞으면은, 합산을 해 보면은, 그 프로테이지, 본래의 학운위의 조직 그 조례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히 조직된 학운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학운위 조직에 대한 여러 난무하는 그 여론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운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이점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조례가 잘못 됐으면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시든가, 또 본 위원도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번 선거에도 다소 이러한 교직원으로 인해서 선거의 결과가 좌지우지 됐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문에 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신원조회 문제, 제가 그 신문기사를 보고 관계조치법이나 또는 부정선거방지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 세 법령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학운위를 구성하는데 해 주실 만한 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사실 가서 좀 해달라고도 부탁을 하고, 이게 본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작은 학교에서

는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이런 공공선거의 선거권을, 여하, 자격의 여하, 이런 것을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운위를 구성할 때에 이러한 세 개 법안을 검토하셔서 입 후보하시는 학운위 위원님께 이러한 사전에 서류를 구비해서 학운위를 구성했다면 다시 무슨 선거인단을 사적인 통신이나 이런 쪽에 우리 학교에서 오해는 받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추구를 해 봅니다.

이상 정리해서 세 가지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이 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직속기관이나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지금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 표를 혹시 가능하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은 앞으로 위원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충북교육의 명예는 하루 속히 회복되고, 우리 충북교육의 그동안 발전한 모습이 제 빛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팔을 걷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지각 없는 일부 교육자 때문에 다시

[제140회-제1차 본회의]

우리 충북교육이 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투하시는데 모두가 힘 합쳐서 우리 충북교육을 다시 한번 전국에 우뚝서는 교육기관으로 서는데 합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3)

※ 별 책 부 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6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경계확안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불출석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전국소년체전 집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신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에

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4월 1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3차에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의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868억 9,905만 4,000원보다 1,266억 2,58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35억 2,4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5억 3,611만 7,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억 5,6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특회계부담수입 564억 7,169만 2,000원, 주민부담수입 2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관별 자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808억 6,160만 3,000원, 문화및평생교육에 2억 3,245만원, 급여·복지에 277억 1,651만원, 교육

행정에 39억 4,770만 8,000원, 예비비에 138억 6,753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내역은 9,572만 2,000원으로 교·학연계학교 혁신 프로그램 개발비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2001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으로 7,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시기 등에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미 지급하였기에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신설,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교직원 인건비 증액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여 준 점과 시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금번 예산이 적정히 편성,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이월 추정액을 적정히 판단,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시설비 등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지역별, 공·사립별, 학교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일선 학교 체육활동 등 교육현장 지원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7차 교육과정과 관련 증축되는 교실이 부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중장기 예산 프로그램 운용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소수의

[제140회-제2차 본회의]

건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9,57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1조 135억 2,486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병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 박상환,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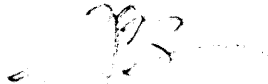
※ 부 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4)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5. .

의 장 손 만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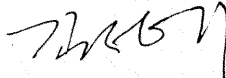
위 원 송 진 하



위 원 김 광 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臨時會)

2002. 4. 22. ~ 4. 26.(5 日間)

| 日 時 | 附 議 案 件 | 備 考 |
|-----------------------------|---|--------|
| 4月 22日(月) (14:00) |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40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4. 22. ~ 4. 26.(5 일간)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 |
| 4月 23日(火) ~ 4月 25日(木) |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議案關聯 現場訪問 | 本會議 休會 |
| 4月 26日(金) (11:00) | [第2次 本會議]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閉 會 | |

(별첨 2)

| | |
|--------------|---------------------|
| 의안번호 | 제 140 -1 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2. 4. . (제 회)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2. 4. 12.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 |
|----------|---------|
| 의안 번호 | /40 - / |
|----------|---------|

제출년월일 : 2002.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득】

- 취득 사유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취득 내역

| 구 분 | 취득 기관명 | 사 업 명 | 취득 면적 (㎡) | 추정 금액 (천원) |
|-----|----------|------------------------|--------------|---------------|
| 건 물 | 서원초외 11교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육 여건 개선 | 11,836.5 | 9,832,868 |
| 공작물 | 미원중 | 오수정화조외 3종 | 4종 | 161,568 |
| 계 | 12교 | | | 9,994,436 |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실 명 자 료 : 별 책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m, 천원)

| 구 | 분 | 상 반 기 | | | 하 반 기 | | | 합 계 | | |
|-------------|---------------|-------------------|-----|-----|----------|-----------|-----------|----------|-----------|-----------|
| | | 건수 | 수 량 | 금 액 | 건수 | 수 량 | 금 액 | 건수 | 수 량 | 금 액 |
| 취 | 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12 | 11,836.5 | 9,832,868 | 12 | 11,836.5 | 9,832,868 |
| | | 기타 | | | | 4종 | 161,568 | | 4종 | 161,568 |
| | 득 | 1. 매 입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2. 교환 으로 취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 취득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12 | 11,836.5 | 9,832,868 | 12 | 11,836.5 | 9,832,868 | |
| | 기타 | | | | 4종 | 161,568 | | 4종 | 161,568 | |
| 처 | 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4. 매 각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5. 양 여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6. 기 타 처 분 | 토지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의 표 시 | | | | 추 정 가 역 | 취 득 사 기 | 취 득 사 유 |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 비고 |
|----------|-----------|-----|-----------------------|----------|------------|------------|-----------------------|----------------------|-----|
| | 기관명 | 구 분 | 소 계 지 | 수 량 | | | | | |
| 1 | 서원초 | 건 물 | 청주시 흥덕구 북대2동 977 | 966 | 800,000 | 하반기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교육감 | 1쪽 |
| 2 | 남성초 | "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 | 1,350 | 1,086,167 | " | " | " | 2쪽 |
| 3 | 용암초 | "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3 | 945 | 860,575 | " | 제7차 교육과정 | " | 3쪽 |
| 4 | 청운중 | "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73-48 | 960 | 872,906 | " | 교육여건 개선 | " | 4쪽 |
| 5 | 청주남중 | "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3 | 795 | 611,186 | " | " | " | 5쪽 |
| 6 | 청주동중 | "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7-5 | 735 | 545,353 | " | " | " | 6쪽 |
| 7 | 성남초 | " | 충주시 교현1동 293 | 930 | 738,200 | " | 제7차 교육과정 | " | 7쪽 |
| 8 | 탄금초 | " | 충주시 칠금동 824 | 1,227 | 945,000 | "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 | 8쪽 |
| 9 | 홍광초 | " | 제천시 모산동 396-1 | 780 | 593,872 | " | " | " | 9쪽 |
| 10 | 송학중 | " |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100-2 | 1,147.5 | 1,134,609 | " | 교육환경개선 (전면 개축) | " | 10쪽 |
| 11 | 미원중 | "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3 | 1,176 | 974,000 | " | 제7차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 | 11쪽 |
| | | 공작물 | " | 4종 | 161,568 | " | " | " | |
| 12 | 감곡중 | 건 물 |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890-3 | 825 | 671,000 | " | " | " | 12쪽 |
| 계 | 12교 | 토 지 | | | | | | | |
| | | 건 물 | | 11,836.5 | 9,832,868 | | | | |
| | | 공작물 | | 4종 | 161,568 | | | | |
| | | 계 | | | 9,994,436 | | |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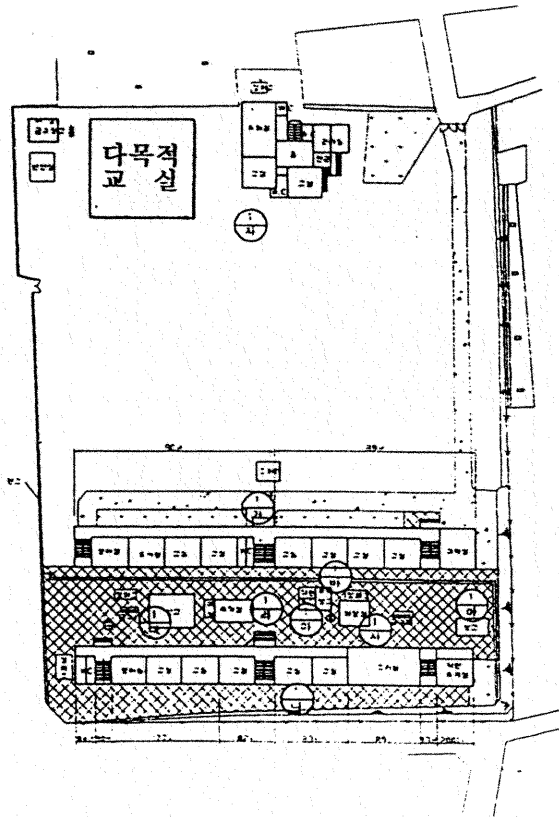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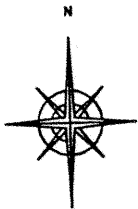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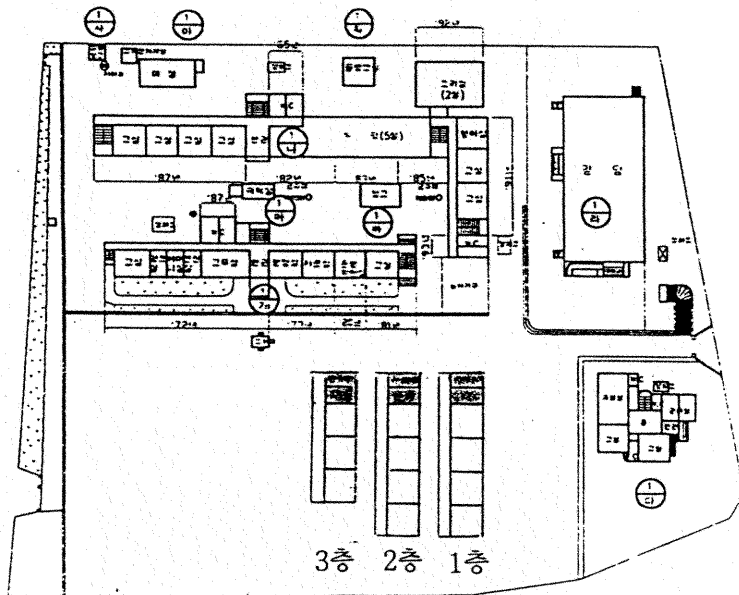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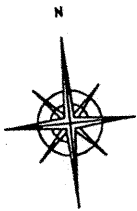
서원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m ²)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다목적교실 | 청주시 북대2동 | 977 | 철·콘·판넬 | 966 | 800,000 | 제7차교육과정 및 교육여건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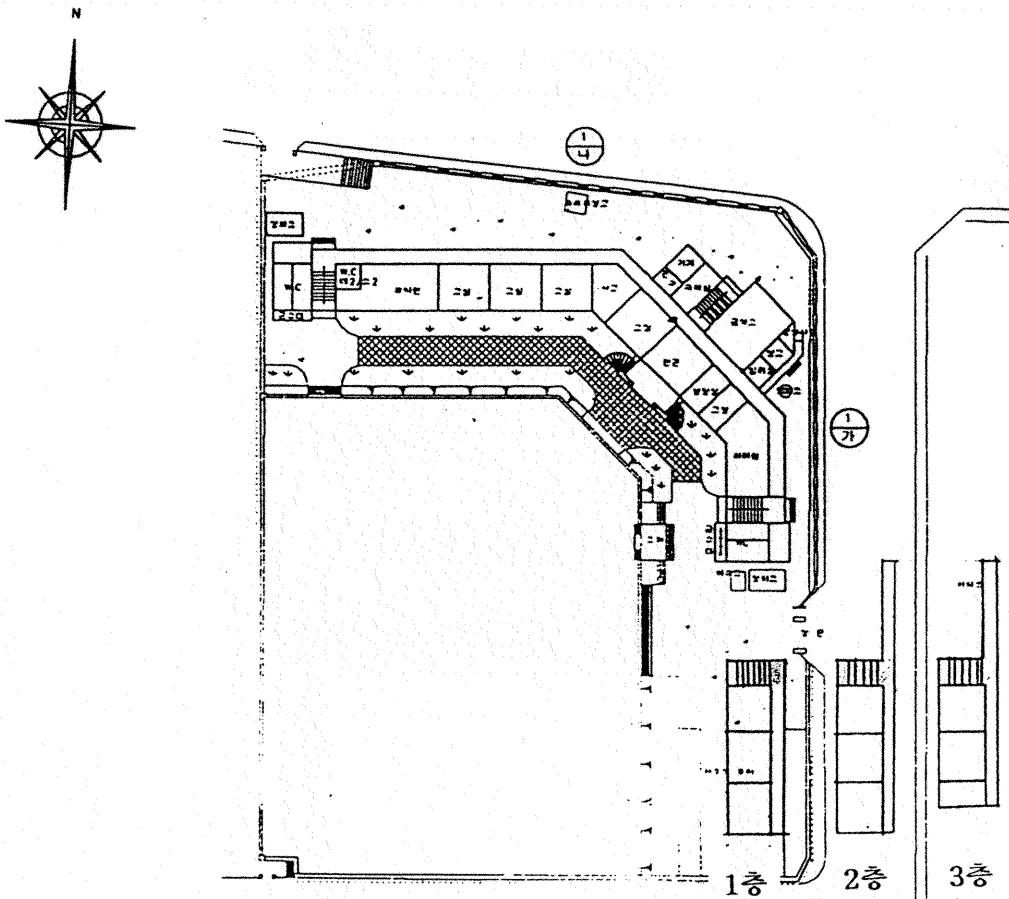
남성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계 단 실 화장실 | 청주시 분평동 | 219-1 | 철·콘·슬 | 990 | 719,967 | 제7차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 | | | | 180 | 116,000 | |
| | | | | 180 | 250,200 | |
| 계 | | | | 1,350 | 1,086,1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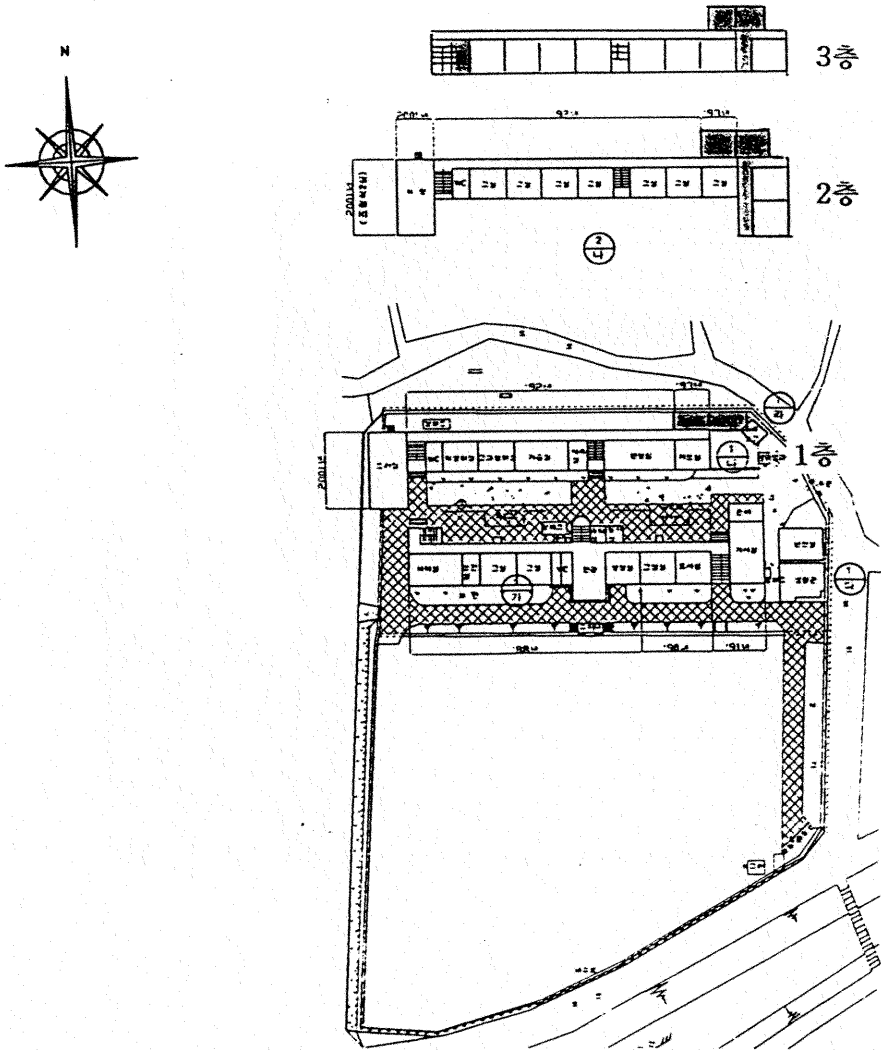
용암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교실 | 청주시 용암동 | 2103 | 철·콘·슬 | 810 | 773,575 | 제7차 교육과정 |
| 계단복합실 | | | | 135 | 87,000 | |
| 계 | | | | 945 | 860,57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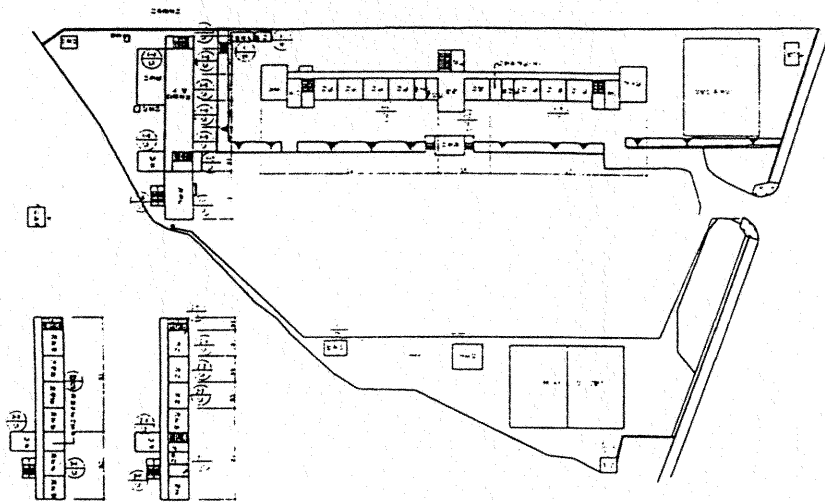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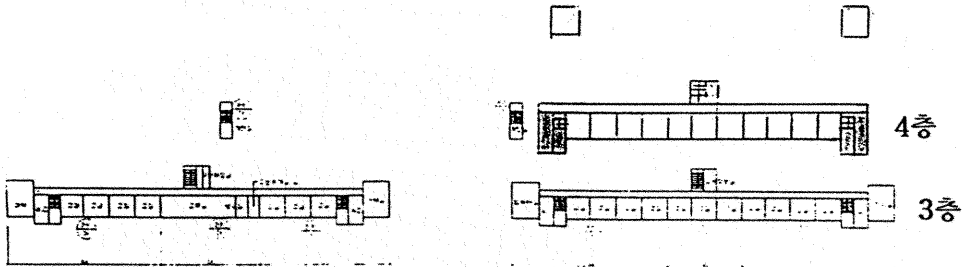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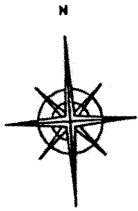
청운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 청주시 영운동 | 73-48 | 철·콘·슬 | 540 | 506,706 | 교육여건 개선 |
| 계단실 | | | | 180 | 116,000 | |
| 화장실 | | | | 240 | 250,200 | |
| 계 | | | | 960 | 872,90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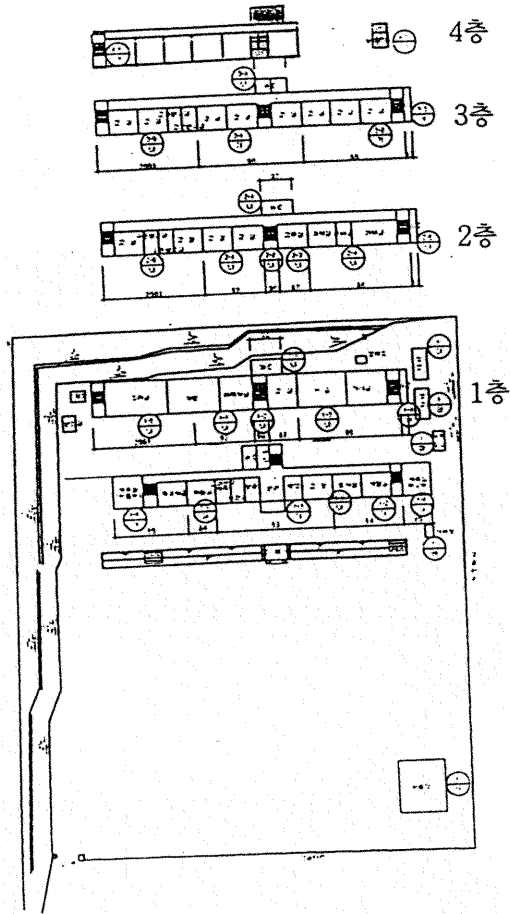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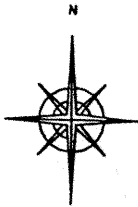
청주남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 청주시 수곡동 | 1003 | 철·콘·슬 | 450 | 332,786 | 교육여건 개선 |
| 자 료 실 | | | | 45 | 29,000 | |
| 계 단 실 | | | | 90 | 58,000 | |
| 화 장 실 | | | | 120 | 166,800 | |
| 물탱크실 | | | | 90 | 24,600 | |
| 계 | | | | 795 | 611,18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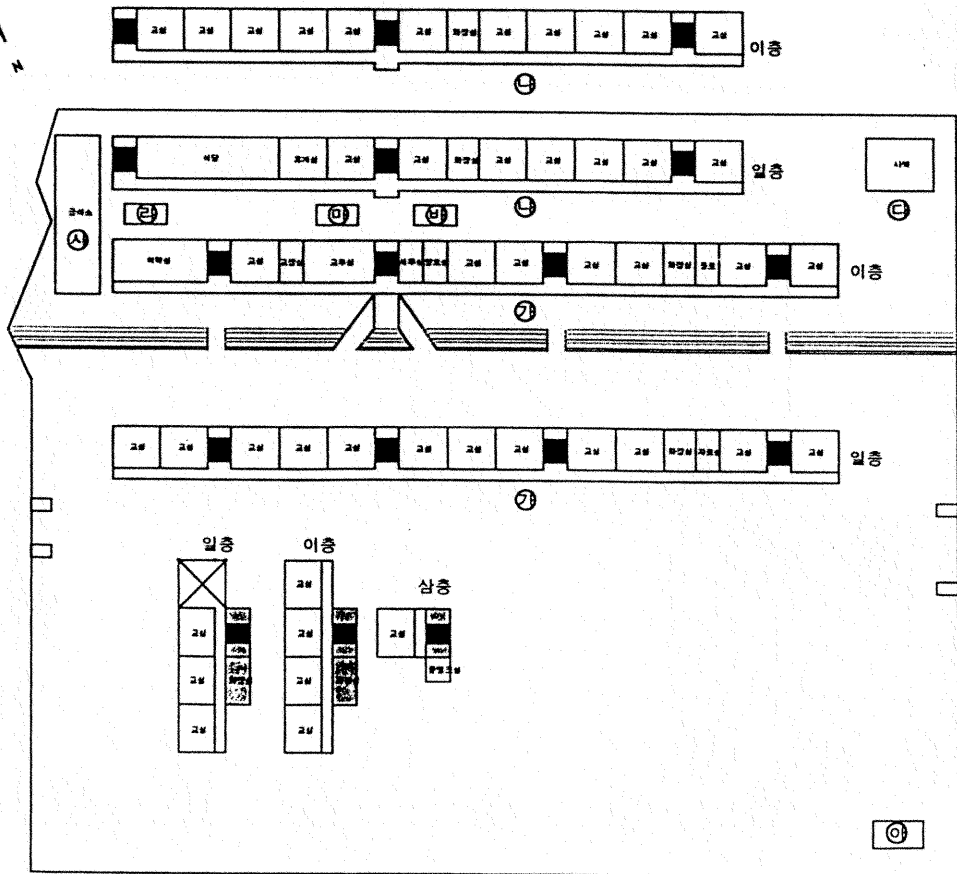
청주동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m ²)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 청주시 금천동 | 47-5 | 철·콘·슬 | 540 | 391,653 | 교육여건 개선 |
| 체·단·실 | | | | 90 | 58,000 | |
| 화장실 | | | | 60 | 83,400 | |
| 물탱크실 | | | | 45 | 12,300 | |
| 계 | | | | 735 | 545,35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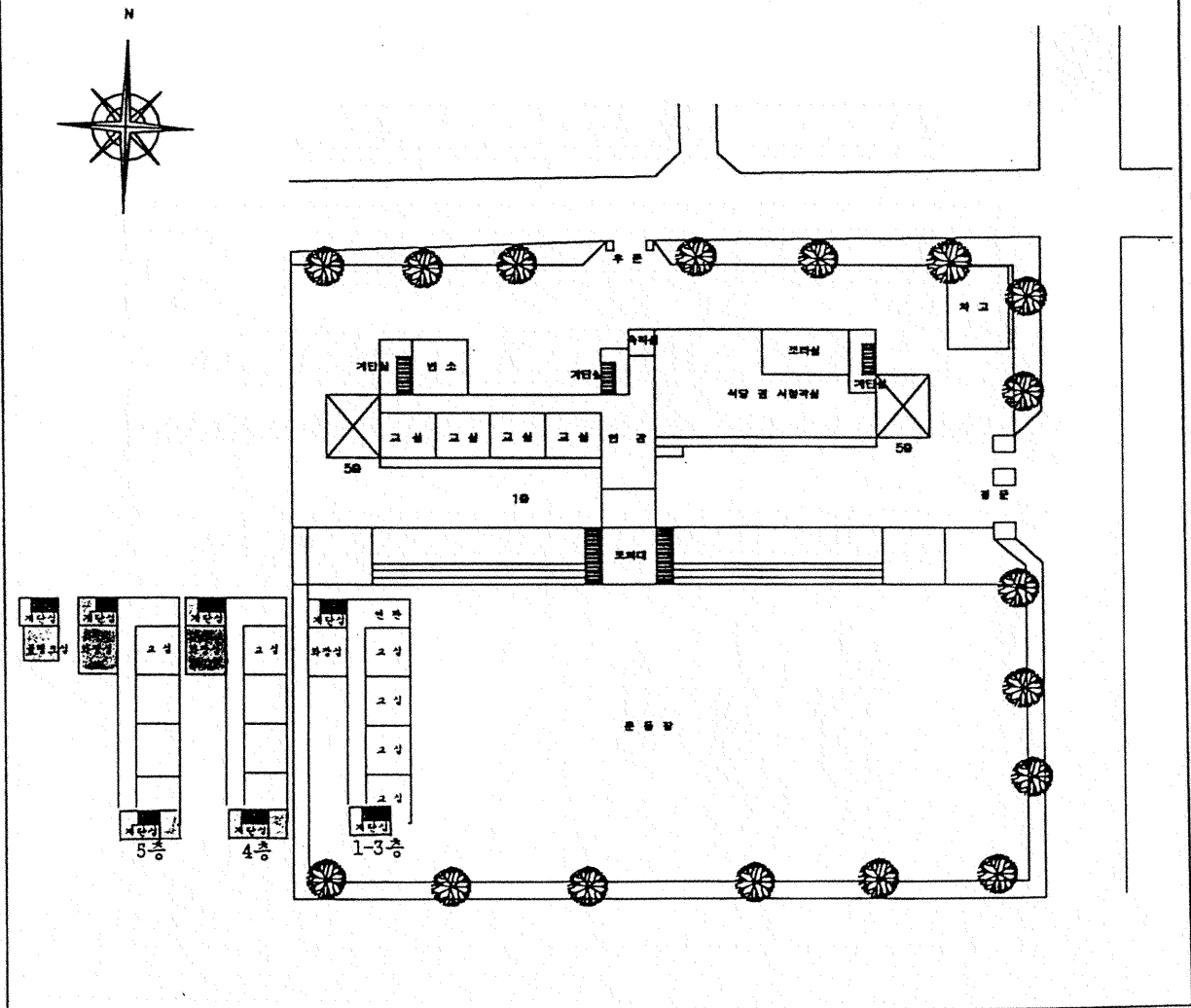
성남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동)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 충주시 교현1동 | 293 | 철·콘·슬 | 720 | 513,400 | 제7차 교육과정 |
| 계단실 | | | | 90 | 58,000 | |
| 화장실 | | | | 120 | 166,800 | |
| 계 | | | | 930 | 738,2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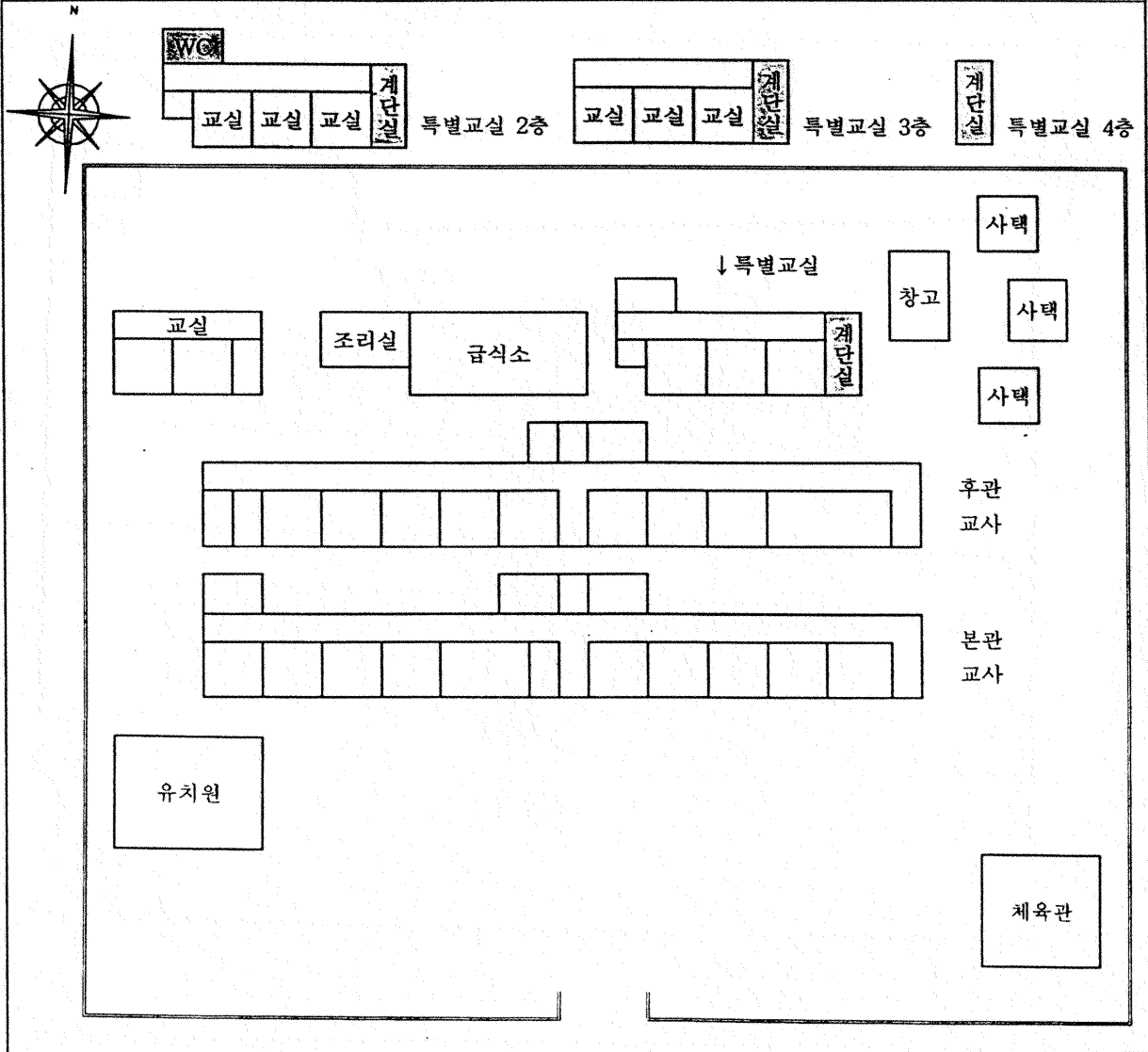
탄금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교 실 | 충주시 칠금동 | 824 | 철·콘·술 | 900 | 623,000 | 제차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 계 단 실 | | | | 180 | 116,000 | |
| 화장실 | | | | 120 | 166,800 | |
| 물탱크실 | | | | 27 | 39,200 | |
| 계 | | | | 1,227 | 945,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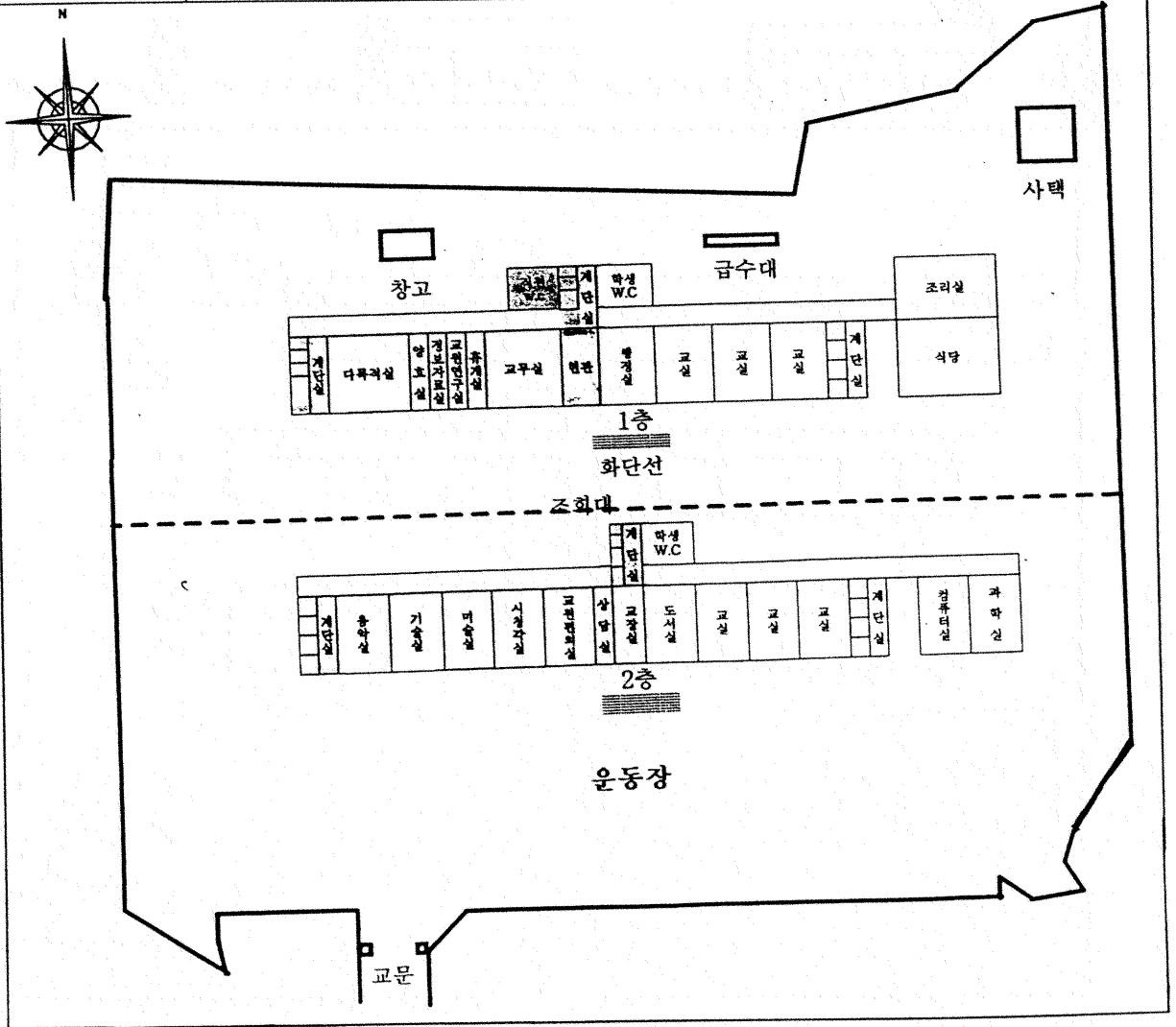
홍광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m ²)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교실 | 제천시 모산동 | 396-1 | 철·콘·슬 | 540 | 394,472 | 제7차교육과정 및 교육여건개선 |
| 계단실 | | | | 180 | 116,000 | |
| 화장실 | | | | 60 | 83,400 | |
| 계 | | | | 780 | 593,87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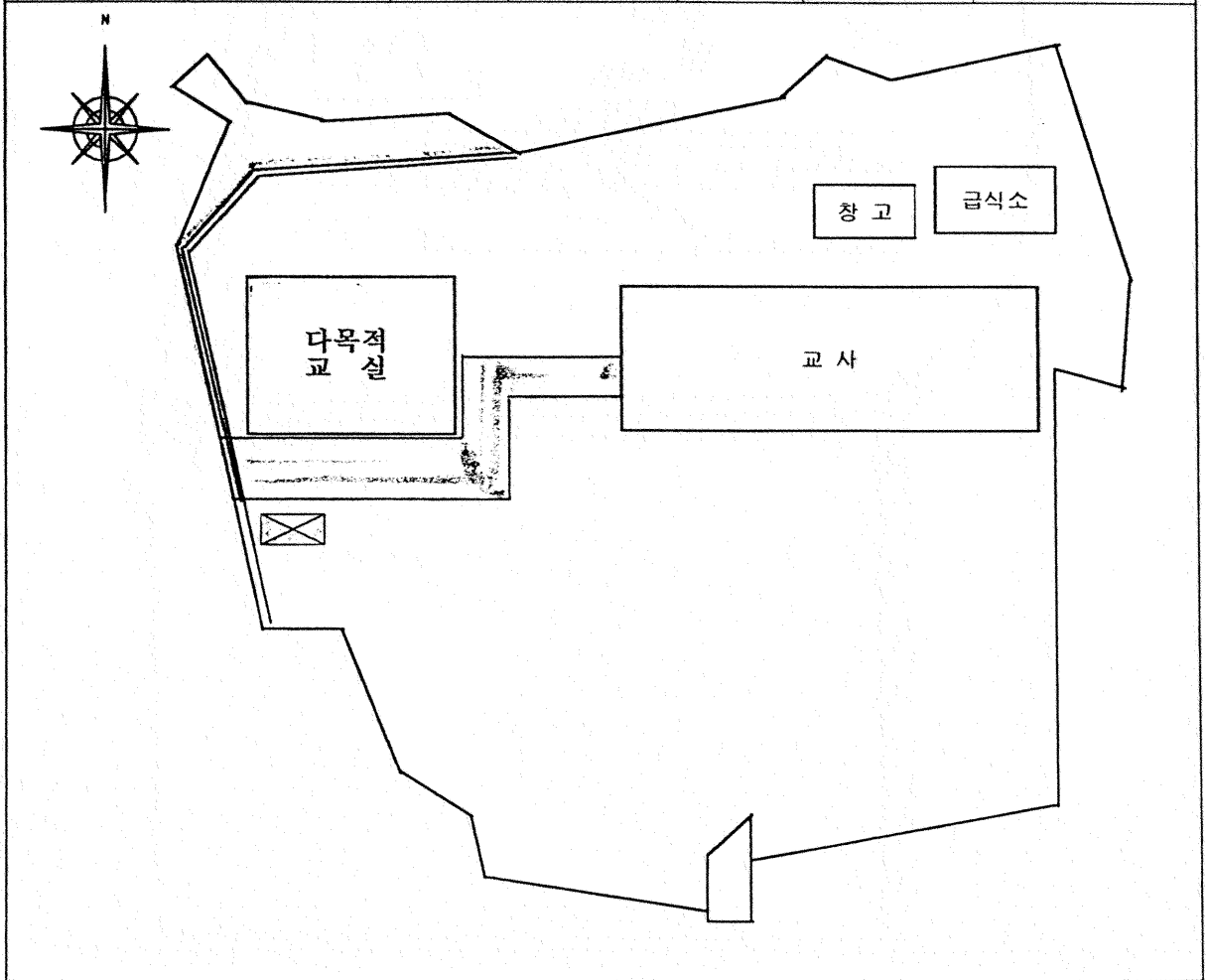
송학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구조 | 면적 (m ² /m) | 취득금액 (천원) | 사유 |
|-------|---------|--------|-------|---------------------------|--------------|-------------------|
| 교실 | 송학면 시곡리 | 1100-2 | 철·콘·슬 | 945 | 876,709 | 교육환경 개선 (전면개축) |
| 현관 | | | | 45 | 58,000 | |
| 계단실 | | | | 112.5 | 145,000 | |
| 직원화장실 | | | | 45 | 54,900 | |
| 계 | | | | 1,147.5 | 1,134,609 | |



미원중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 배치도

| 용 도 | 소 재 지 | 지 번 | 구 조 | 면 적 (㎡/m) | 취득금액 (천원) | 사 유 |
|-------|---------|-------|--------|--------------|--------------|----------------------|
| 다목적교실 | 미원면 미원리 | 281-3 | 철·콘·판넬 | 1,176 | 974,000 | 제7차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 |
| 오수정화조 | " | " | | 1식 | 44,900 | " |
| 옹벽 | | | | 150 | 45,000 | |
| 배수로 | | | | 170 | 38,500 | |
| 포장 | | | | 580 | 33,168 | |
| 계 | | | | | 1,135,568 | |



(별첨 3)

| | |
|--------------|---------------------|
| 의안번호 | 제 140 -2 호 |
| 의 결 년 월 일 | 2002. 4. . (제 회)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2002. 4. 12.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40-2

제출년월일 : 2002. 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868억 9,905만 4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1,266억 2,580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135억 2,486만 3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695억 3,611만 7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억 5,6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64억 7,169만 2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2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808억 6,160만 3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3,245만원, 급여·복지 277억 1,651만원, 교육행정 39억 4,770만 8천원, 기타경비 138억 6,753만 8천원을 계상 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 설명서 : 별책

(별첨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2. 4.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 | |
|-----------------------|----|
| 1. 심사경과 | 45 |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 45 |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45 |
| 4. 토론 주요내용 | 45 |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46 |
| 6. 수정안의 주요내용 | 50 |
| 7. 심사결과 | 50 |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50 |
| 9. 기타 필요한 사항 | 50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4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2년 4월 22일)
- 제2차 소위원회(2002년 4월 23일)
- 제3차 소위원회(2002년 4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6,899,054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126,625,809천원이 증액된 1,013,524,863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69,536,117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56,000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6,471,692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62,000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80,861,603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32,450천원, 급여·복지 27,716,510천원, 교육행정 3,947,708천원, 기타경비로 13,867,538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886,899,054천원보다126,625,809천원이 증가한 1,013,524,863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 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 감 | | 비 고 |
|---------------|-------------|-------------|--------|-----|
| | | 금 액 | 비 율 | |
| 1,013,524,863 | 886,899,054 | 126,625,809 | 14.3%증 |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69,536,117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356,000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6,471,692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262,00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장 관 별 | 금 액 | 구성비(%) | |
|-------------------|-------------|------------|------|
| 국가부담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69,156,522 | 54.6 |
| | 국고지원금 | 379,595 | 0.3 |
| | 소 계 | 69,536,117 | 54.9 |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 비법정전입금 | 356,000 | 0.3 |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 재산수입 | 1,783,577 | 1.4 |
| | 입학금 및 수업료 | 825,983 | 0.7 |
| | 잡수입 | 552,619 | 0.4 |
| | 이월금 | 53,309,513 | 42.1 |
| | 소 계 | 56,471,692 | 44.6 |
| 주민(기관등)부담수입 | 주민(기관등)부담금 | 262,000 | 0.2 |
| 합 계 | 126,625,809 | 100.0 | |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80,861,603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32,450천원, 급여·복지 27,716,510천원, 교육행정 3,947,708천원, 기타경비로 13,867,538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장 | 관 | 별 | 금 | 액 | 구 | 성비(%) | | |
|-------|---|---|------------|-------------|------------|-----------|------------|------|
| 학교교육 | 유 | 치 | 원 | 460,318 | 0.4 | | | |
| | 초 | 등 | 학 | 교 | 44,169,162 | 34.9 | | |
| | 중 | 학 | 교 | 24,360,520 | 19.2 | | | |
| | 고 | 등 | 학 | 교 | 11,801,349 | 9.3 | | |
| | 특 | 수 | 학 | 교 | 59,254 | 0.1 | | |
| | 기 | 타 | 학 | 교 | 11,000 | 0.0 | | |
| | 소 | | | 계 | 80,861,603 | 63.9 | | |
| 문 | 화 | 및 | 평 | 생 | 교 | 육 | 232,450 | 0.2 |
| 급여·복지 | 급 | 여 | 23,338,965 | 18.4 | | | | |
| | 복 | 지 | · | 후 | 생 | 4,377,545 | 3.5 | |
| | 소 | | | 계 | 27,716,510 | 21.9 | | |
| 교육행정 | 교 | 육 | 위 | 원 | 회 | 33,610 | 0.0 | |
| | 교 | 육 | 청 | 2,016,768 | 1.6 | | | |
| | 지 | 역 | 교 | 육 | 청 | 915,828 | 0.7 | |
| | 교 | 육 | 지 | 원 | 기 | 관 | 981,502 | 0.8 |
| | 소 | | | 계 | 3,947,708 | 3.1 | | |
| 기 | 타 | 경 | 비 | 예 | 비 | 비 | 13,867,538 | 10.9 |
| 합 | | | 계 | 126,625,809 | 100.0 | | | |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시설비
- 학교신설

75,549,311천원

35,725,830천원

| | |
|---------------------|--------------|
| · 수용시설 확충 | 19,458,316천원 |
| · 교육환경 개선 | 14,076,528천원 |
| · 기타시설 | 6,288,637천원 |
| ○ 교육정보화 사업 | 1,271,160천원 |
| · 전산보조원 임용 | 613,960천원 |
| · 교원용 컴퓨터 보급 | 331,200천원 |
|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292,950천원 |
|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 33,050천원 |
| ○ 교육활동지원 | 1,742,333천원 |
| · 교육과정 자료 개발·보급 | 272,640천원 |
| · 연구시범학교 운영 | 791,344천원 |
| · 학예행사 지원 | 14,750천원 |
| · 교육연구활동 지원 | 80,000천원 |
| · 학력신장 지원 | 69,396천원 |
| · 학생 흡연 예방 교육 | 120,000천원 |
| · 무상 교과서 지원 | 394,203천원 |
| ○ 과학실업교육 지원 | 855,081천원 |
| · 실업계고 컴퓨터 교체 | 787,200천원 |
| · 실습실 난방기 지원 | 42,735천원 |
| ○ 학교급식 지원 | 421,600천원 |
| · 급식확대 | 373,600천원 |
| · 학교급식 운영 지원 | 48,000천원 |
| ○ 학교체육 진흥 | 497,848천원 |
|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 244,662천원 |
| · 학교체육활동 지원 | 162,600천원 |
| · 순회코치 임용 | 90,586천원 |
| ○ 각급학교 운영비 지원 | 616,365천원 |
| · 교육환경 정비사업 | 224,000천원 |
| · 학교 통·폐합 지원 | 30,000천원 |
| · 기타 운영비 지원 | 362,365천원 |
| ○ 평생교육 지원 | 68,104천원 |
| · 공공도서관 운영 | 30,000천원 |
| · 평생학습관 운영 | 38,104천원 |
| ○ 교직원 사기진작 | 147,845천원 |
| ·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 30,120천원 |
| · 교원안전망 구축 | 11,725천원 |
| ○ 인건비 | 33,423,524천원 |
| · 교직원 인건비 | 31,647,711천원 |

나. 삭감내역

삭감액 : 95,722,000

삭감내역 및 사유

○ 교·학연계학교혁신프로그램개발비보조 20,000천원

교·학연계학교혁신프로그램개발비보조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하였음.

○ 2001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75,722천원

2001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으로 75,72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 시기 등에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 계상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미 지급 하였기, 인상분 전액을 감액 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2001년도 순세게임여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신설,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적 추진, 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인건비 증액 지원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 예산편성 관계자료의 충실한 준비 및 사전제공으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여 준 점,
- 시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금번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나,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이월 추정액을 적정히 판단,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시설비 등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예산 배분에 있어 가능한 한 지역별, 공·사립별, 학교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일선 학교의 체육활동 등 교육현장 지원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중장기 예산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제고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등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4. 26.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시행할 사업과 이미 지급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항), 학력신장지원(세항)
 - 교·학연계학교혁신프로그램개발비보조 20,000천원을 감액함.
- 급여·복지(장), 급여관리(관), 행정직급여(항), 행정직급여관리(세항)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75,358천원을 감액함.
- 급여·복지(장), 급여관리(관), 행정직급여(항), 의사국급여관리(세항)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364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24,436,448천원을 24,532,170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2. 4. 26.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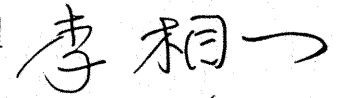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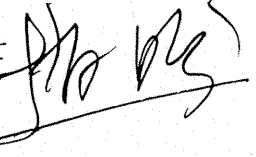
송진하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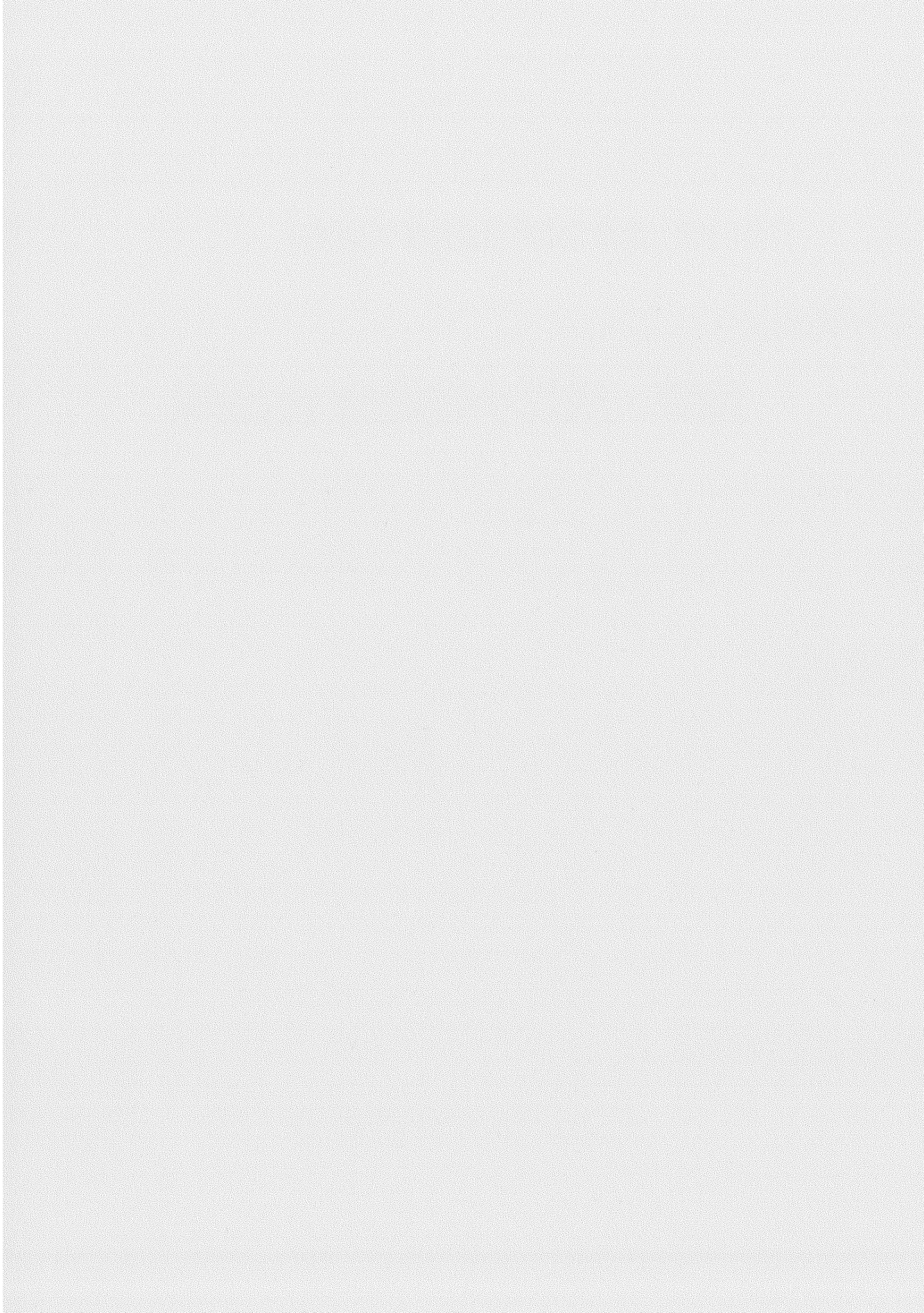
조일환



第140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 |
|---|-----------|
| I.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7 |
| II.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61 |
| III.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103 |
| IV. 부 록 | |
|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09 |
| 2. 서면답변서 | 11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2일 (월요일) 14시 35분

議事日程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3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칭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김광수 위원

추천 좀 해 보세요.

이기수 위원 하세요.

● 이기수 위원

네, 그러죠.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기수

방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37분)

●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조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세요.

● 김광수 위원

내가 할까요? 제가 하지요.

● 위원장 이기수

예, 김광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의견

(14시 40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4월 26일, 3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원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3일 (화요일) 10시 30분

議事日程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 위원장 이기수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추경예산안 작

성에 직접 관여한 기획관리과장님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2페이지.

● 조일환 위원

어떤 거죠. 이게, 과장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주요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한 것, 조금 부가적으로 질문하면 안돼요? 전체적으로.....

잠깐만.....

● 위원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14페이지, 과장님 말이요. 맨 밑에 교원 단체활동 지원이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은 전교조하고 다른가요? 과장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네.

● 조일환 위원

한교조를 말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조일환 위원

전교조가 뭔가 한번 알아 본 거예요.

● 위원장 이기수

질의하세요.

● 간사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충북교육의 예산이 1조원을 넘는 그런 예산이 계획되었습니다.

참, 충북에도 이제 예산이 1조원이 넘었다는 것이 대단한 그러한 규모인가 합니다.

거기 이제 세입에서 요번에 순수하게 교부금이 697억 1,000만원이 나왔고,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은 3억 5,600만원은 청주시에서 3억 5천만원이.....

청주시에서 준다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리고 재산수입에 학교용지 도로편입 학교용지를 팔은 것이 17억 8,000만원이 들어온거구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간사 김광수

이제 수업료 수수료가 8억 2,500만원인데, 그 밑에 이월금 및 잡수입이라고 해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538억 6,200만원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도 비

숫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간사 김광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당초 예산에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성이 됐던 것이 있지요.

이월금이라고 해서, 본 예산안에 보편은 이월금이라고 해서 224억, 224억이 거기 예산이 서 있단 말이지요, 요거하고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수요의 예측에 의해서 사용할 잔액을 제외하고,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딱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했어야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수정치의 추정이 다소 미흡해서 당초 예산안은 224억 2,900만원만 편성을 했고,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교육부에서 국고가 시달이 늦게 됐거나 또 추경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추경이 통과되고서 사실상 쓰지 못한 돈들이 있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757억 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 간사 김광수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은 작년도에 12월이라든가 11월 늦게 온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224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이 되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은, 여기 538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뒤로 남겨놔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이미 8, 9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나오리라는 거는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일부분, 여유 있게 일부분만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이 이루어진 후에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알았어요. 대충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너무 많이, 너무 많

이 이게 당초에도 224억이 서 있는데, 여기 538억이라고 하는 돈이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적에는 1,266억이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지만은 이 500여억원을 뺄 것 같으면, 사실은 이런 액수가 안 되는 거지요.

국고보조 695억하고, 여기 재산수입이니 수업료 수입이니 이거하고, 이거정도가 요번에 순수하게, 순수하게 예산이 되는 것이지, 538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예산편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노상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고 지적을 한 것인데, 예산을 국고에서 얻어오는 분이 아주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을 지을 적에 100% 얻어 오면 좋은데 조그마치 얻어다 붙여 놓고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태게 된다 말이지요.

요번에도 그렇게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본래 본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

을 할 장소 여하에 따라서 정화조를 좀 넓혀야 된다던가, 또 아니면 축대를 다시 쌓거나 아니면 부목을 설치해야된다던가 해서, 이렇게 다소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림여중이나 매포초등학교 등 특정한 특기종목을 살리다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준단가로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학교가 그런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여기 증평문제는 있다가 아마 이상일 위원이 현지도 방문하시고 질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안드리고 지출면에 가서 11쪽에 주요 사업계획 말이죠, 역사왜곡관련 국사 수업용 자료라고 해서 800여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왜곡관련이라고 했는데.....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중등교육과장 반창남입니다.

작년부터 일본에서 국정교과서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를 잘못 기술한 것을 승인해 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일선에 발간해서 보급했고, 금년도도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간사 김광수**

네, 알았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송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1,266억원 같으면 비교적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에 중점되어 있고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적절히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설명자료 거기 보면은 11페이지, 거기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미원초등학교가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3억7천 5백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원초등학교는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로서 잘 지어났죠, 지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놓고, 또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그렇게 꼭 해야 하나요.

다른 학교도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집 잘 안지은 학교도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안되나요, 왜? 꼭 건물이 좋아야 해요. 나쁜데서도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연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해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원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한 개가 되지 않는 열 개교를 전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모형 학교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모형학교를 10군데 지정해서 국가에서 1억8천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5대 5로 해서 1억8천을 또 우리 지방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모형학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다가 이번에 저희들도 해서

미원초등학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미원초등학교를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나온 거예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아니죠.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지정하고 할 때는 그런 거를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화 시범학교 뭐 몇 십억씩 투입해 가지고 잘 지어났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현대화 시범학교가 아닌 이웃에 그 초라한 학교도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이 연구 지원금도 초라한 학교에 줘 가지고 뭔가 시설도 초라한데 보완해서 뭔가 의욕을 돋구어 주어야 하는데, 잘 지어주고 돈도 주고 이런데도 있고, 자꾸 그러면 이웃학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어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네,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대안을 갖고서.....

● 송진하 위원

교육부에서 설마 지정한다고 그래도 자

치기구 아닙니까? 자치단체니까, 과감하게 우리 소신 것 판단으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정되는 것이 전국에 각 시·도에 한 개교라던지 그렇게 아니라 전국에 10개교를 지정했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만약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지정이 안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구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기타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청주시내 학교에 도서 및 교재·교구 확충비라고 해 가지고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청주시내 학교는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조성이 됐고, 또 교육여건도 도내에서는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청주시내에만 이렇게 유독 지원을 해 주는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청주시에서 저희 들한테 주는 일종의 전입금입니다.

청주시 학교만 청주시장님이 청주시 학교에 교재·교구나 또는 도서 구입비로 지원해 준 돈이기 때문에 청주시에 계상 된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그럴 경우, 그거는 청주시장이 준 거니까 청주시내 학교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경우 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이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뭔가 바란스가 맞아 야지, 청주시는 잘 사니까 시 예산이 넉 넉하니까 줘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시골은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면 말하자면 학교도 빈익빈 부익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나눠 가지고 다른 시·도로 줘야 되요. 다른 시·도로,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시·군에는 시·군 의회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안주고, 청주시 는 지원해 주니까 준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안주는 배고픈 시·군도 우리예산에서 떼어서 조금씩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 오지 군같은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

까?

앞으로 점점 이런 현상은 더 나타날 겁 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은 우려 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 가 제일 가난한 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도 또 있습니다, 도별로.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청주시는 3억5천을 교재·교구 및 도서 구입비로 내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음성같은 경우는 시설비를 직접 학교 에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 쪽으로 군수님들이 도서 구입비라든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치시대에 각 지역별로 능력에 맞는, 능력별로 자기 들이 활동한 만큼 수입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북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참 제주도가 일 등이에 요. 제주도가 일반 회계에서 돈이 많습니 다. 관광수입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도 청하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돈을 좀더 얻어 올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화 될 우려가 없는 것

은 아니냐, 역시 이제 개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진하 위원

어떻게 됐든 그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못받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는 도단위이니까, 우리가 교육자치를 도단위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어려운 곳은 다른 시·군만큼 도움을 못 받는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서 3개 교육청에 6학급, 6학급인데 하는데, 그러면 3개 교육청은 어디 어디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네,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청주, 충주는 중학교, 제천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지역 교육청에 산재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 송진하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영재성 있는 애들은 그리로 가야 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재교육이 추진 단계에 있

는데, 청주에 2학급을 만들고, 충주에 2학급, 제천에 2학급해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재성 어린이를 갖다가 판별을 해서 전과 시간이 끝나고서 오후에 그 학교에 모여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럼, 단양에 영재성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청주로 와야겠네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지금 현재는 타 지역에는 없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영재교육 엄청 부르짖고 있고, 또 어느 면으로 봐서는 과외가 이렇게 정도를 넘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이 영재교육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1개 시·군에 1학급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동요되지 않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된다고 그럴 때 그 3개 시·군 외에는 그럼 우리 아들은 왜 영재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런 거만은 고루 도움이 되도록 과감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시·군은 물론 시범적으로 한

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국가적으로 예민한 사항,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고등학교, 영재학교 이러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고루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저 사항별 설명서, 여기 124페이지, 거기 공무상 요양비가 101명이나 지금이 되는데요, 그 공무상 요양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 관리국장입니다.

공상 요양비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생명이나 신체상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무원 요양비하고, 또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조례에 사망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인원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12만 교직원들하고 2천8백명 일반직 중에서 상당수가 상해를 당하는데, 그것이 2001년도 이전에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했던 것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늦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 하다보니까 인원수

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거고 당초에 연간 인원은 적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연금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가지고 요양비를 탄다 할 때, 참 그것도 이게 어느 면으로 봐서는 노조가 없으니까 그렇지 노조가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거지요.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과연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요양비를 지급하게끔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요양비를 지급해야겠지요. 그런 실제로 이렇게 많구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재해랑 틀립니다.

왜냐 하면,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공무상 장애는 대부분이 그 직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몸에 이상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가끔적이면 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는 측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요양비가 다소 많은 걸로 표시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산업근로자의 보고되는 안전사고 재해와는 틀립니다.

● 송진하 위원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신체검사 종합측정기를 각 시·군에 사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종합측정기 새로 나온 겁니까?

측정기하면 체중 뭐 이런 것, 신장 뭐 이런 것, 측정을 하도록 각 학교에 이미 다 기구는 있는데, 또 뭐가 새롭게 나와 가지고 꼭 사야 하는 건지 각 시·군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구입하고자하는 것은 과거에는 키는 키대로, 얇은키는 얇은키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올라서면 키도, 신장도 나오고, 혈압도 나오고, 비만도 나오고 하는 기계가 새로 보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혈압이라든지, 비만도라든지 이렇게 전부 측정되어 나옵니다.

● 송진하 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학교에서 이용을 해야지요,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각 학교

에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연차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 송진하 위원

연차적으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예.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저기 366페이지,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생 통학비가 80명분 1,200여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1,200만원 하면 차를 하나 사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왜 통학비를 지원하느냐,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당초에 학교통폐합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사 주기로 한데, 통학비를 대주기로 한데가 있습니다.

통학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소수일 경우에, 이런 경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피 한 학교가 아니라 10개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개 학교에 1,200만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4개 학교에 1,200만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버스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통합할 때 버스비로 대주기로 하고서 편성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까.

● 송진하 위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죽향초, 청산초, 청성초, 대성초 이래서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폐교되는 학교가 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향초에는 군북분교가 들어가 있고, 청산초, 청성초, 대성초에는 청동초, 묘금분교, 마곡분교가 포함되어서 80명을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지원도 좋지만 버스보다도 사실 운전기사를 쓰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저희들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도 편하고 수요자도 편하고 그런 쪽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요. 그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 측면에서 보면 기사 보수니 뭐니 해 가지고 편성했다고 하지만, 그 수요자 그

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기 버스라는 게 다 하교하고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서너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교장 해 봤지만은 애들 혼자 놀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가만히 안있거든 애들은 그러다 사고가 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학교에서 같이 하교시키고 같이 등교한다하는 거는 안전에 가장 중요한 거고, 예산이 다소 투입된다 하더라도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수송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지역실정이라든가 하 여튼 공용버스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런다면 통학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점차 통학버스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끝나고 오래 기다리는 그런 지역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뭔가 누구는 학교버스로 잘 애들을 통학시킬 때, 우리는 왜 이러냐 하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521페이지 지방채 조서인데, 거기 특별회계에서는 5.41%로 우리가 쓰

고 있고, 농협에서는 7%로 쓰고 있는데, 여기 보편은 이자가 낮은 특별회계쪽에서는 다 올라가고 농협에는 이자가 안올라 갔는데, 이자를 많은걸 써야 된다 이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쪽 것을 갖고 재특부문은 남겨있는 상황입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앞으로 갚을, 상환계획이 없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다 갚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죠. 다 갚았죠.

● 송진하 위원

이거 갚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장시간 이 추경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아주 편리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몇 가지만 주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로 1학년, 2학년용, 2단계로 3학년, 4학년용, 3단계로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교재를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교재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초등교육과장 김남훈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여러 가지 교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과협의회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걸쳐서 그 회원들이 컴퓨터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른데서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출판사에서 와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판권을 넘겨라, 저희들이 보급을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섭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다시 분석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잘 만드는 교재를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교재를 만들었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자체 인쇄를 부탁해서 만든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영재교육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판별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별로 진흥위원회가 있고, 영재교실운영에 강사수당, 특별수당 이렇게 있는데, 그 강사수당에 일반 강사수당은 2만3천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강사는 그 해당학교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교육청 안에서 그 분야에 뛰어난 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그러니까 강사 선발을 할 적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한 유능한 선생님을 선발을 해서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학교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지역단위가 됩니다.

● 이상일 위원

지역단위에서 모시는 걸로.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예.

● 이상일 위원

그리고 특별강의 수당은 10만원으로 시간당 정해 놔는데.....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그건 외래강사로 할 때.....

● 이상일 위원

외래강사일 때 하는 걸로.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 이상일 위원

그런데 한가지 조심스러운게, 학부모들이 왜 내 아이가 이런 영재성이 있는데 선발이 안되느냐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그 판별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발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 기준 측도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당신 애는 시험 봐 가지고 이것밖에 안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 아이가 빠졌느냐 증거를 대라 뭐 이런 것도 조금 저.....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예,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판별도구에 의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 받은 어린이를 가지고서 판별위원회에서 판별도구를 봐 가지고서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발을 할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원 연구풍토 조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해외 연수를 2명시키는 걸로 14,4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또 일본어 교사 양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선발방법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생님 선발방법은?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각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시험을 보입니다.

외국어 시험하고 전공시험을 보여서, 거기에 우수한 실력으로 합격한 선생님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본청, 본청 소관으로 공립고등학교에 연구회가 13개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주시면 어떤 교과가 있는지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2)

(끝에 실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교원단체활동지원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교총하고 전교조가 약1억원씩 들어서 이제 사무실을 임차해 줬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교조입니까? 한교조에 얻어 주는 거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예. 지난해 예산.....

● 이상일 위원

저게 교총과 전교조와 한교조에 인원구성비가 대충 나올 수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교총은 현재 한 6,850명 정도, 또 교원노조는 2,903명, 다음에 한교조는 350명 정도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전교조보다 한교조가 많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한교조가 적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똑같이 전교나 교총이나 한교조나 1억씩인데, 350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위해서 1억원씩 큰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제가 올렸다가 예산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교조와 약속을 했고, 1억원 해야 요만한 사무실도 못 얻습니다. 청주서, 지금 그래서 요정도 사무실은 저희가 임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임대료가 그렇게 비쌌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임대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업교육과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습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노후 컴퓨터는 대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노후 컴퓨터는 필요한 학교에 관리전환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판 연습용으로 쓴다든지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저기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닌데, 어느 학교에 선생님 말씀이 창고에 쓰지 않는 노후된 컴퓨터가 많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거는 민간인한테 무상 이양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꼭 이게 노후된 거를 학교에 준다고 그래도 그 학교에서도 노후된 걸 뭐에다가 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창고에서 낫잠 자는 거를 필요한 노인정이라든지 요새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느라고 난리인데, 아니면 필요한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창고에 상당히 많은 노후 컴퓨터가 쌓여있는 것 같은데, 그걸 폐자원 활용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86 이어서 어디도 보내도 받는 데가 없고, 또 처분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286컴퓨터가 아마 창고에 있는 걸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 임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계 당초 계획에는 100명을 하게 되어 있던 거죠.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19명 더해 가지고 119명을 하는 겁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네,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명을 예상하고 5개월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부와 저희들이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83명을 전산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걸 구분해서 전산전문인력 쪽으로 많이 써라, 그래서 예산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보조원, 일용직에 대한 단가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교육감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보다 천원 올려서 하고 각 시·군 교육청과 도교육청에 1명씩은 전문인력으로 하고 일당 3만 3,000원 꼴에 110만원자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2만 2,000원으로 임용을 해서 지금 총 6억 1,000인데, 이것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서 9억 1,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올해 추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 100명에 2억 9,700인데, 19명이 늘어난 119명에 9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어찌 19명이 늘었는데 딱 늘어났느냐 했어요.

5개월을 10개월로 연장한 거에 따르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 52쪽입니다.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연도별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시면, 목표량이 8,97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전에 3,369대가 보급되어서 48.3%가 됐고, 2000년에 3,479대가 되어서 100%가 됐다면, 그 다음에 2,942대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100%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그거는 당해 연도 목표에 따른 것이지, 전체 목표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 이상일 위원

아 그게 2000년도에.....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해에는 100%가 됐는데, 2001년도에 뭐 학급이 늘어났다든지 뭐 학생수가 늘어났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거는 전체 8,978대의 100%와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직도 급식학교가 안 된 학교가 있으면, 안 된 학교에 학교자료를 어느 학교가 안됐는지 그걸 하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급식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형석중학교, 형석고등학교가 되고, 미덕중학교 급식 시설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서원학원에 있는 4개 학교 거기만 지금 학교 여러 가지 배치현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만 남았는데, 내년도에 가서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외에는 다른 공·사립 학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금년까지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예.

● 이상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급식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그쪽으로, 그쪽 방면으로 예산투자를 많이 하는데, 방금 우리 평생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호학원의 급식 시설이 이번 예산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거는 왜그러냐 하면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해주신 바와 같이 국고 보조금 20억원을 들여서 충북여고를 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건축승인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학교가 여상하고 고등학교하고 선생님들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학교 짓는 위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지금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동일 캠퍼스를 쓰기 때문에, 급식실을 별도로 짓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20억원을 지원해서 전체 개축을 학교에서 시설승인까지 저희들에게 주고 돈을 금방 줘야 되는데, 장소 때문에 지금 여상 쪽에서는 여상 쪽에 접근해서는 못 짓는다, 또 여고 쪽에서 지금 지을 때가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재단에서 지금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호학원이 다소 이번에도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사실은 거기 학교보다도 어려움이

많은데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1억6천2백이 증원됐는데,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지정종목 받아 놓으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지원을 안해 주고 자꾸 종목은 지정을 해 주는데,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안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충주에 축구를 키우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에 중앙초등학교, 교원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에 중앙중학, 미덕중학, 고등학교에 예성여고, 충주상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이 축구팀 하나 키우는 것 때문에 탄건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합은 좀 데려가야겠는데 예산은 없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체육대회때 찬조금 좀 받는 거 가지고 어떻게 연명을 하고, 또 어느 학교는 학부모들이 일일차집이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5,6백만원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1조시대 되고 상당히 이런데 조금 더 지원해 줘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애들 운동도 안시킬려고 그러는데, 지원도 제대로 못해줘서 괜히 부모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개선해 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체육지정종목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납입금 받으면 3.6% 361억 정도 되고, 거기에 또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월금이 757억 정도 되고 나면은 거의 인건비 쪽으로 쓰는거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설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평생체육과장님이 상당히 주장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학교의 코치를 저희들이 국고에서 12명하고 국고에서 임명한 13명을 우선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되는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정종목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있으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선에서 보면 너무 딱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

습니다.

충일중학교가 조정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그 학교에 배가 한 척도 없어요.

근데 애들을 배 없이 뭘로 시켰느냐 물어봤더니, 충주농고에 가서 그 배를 타고 교육을 해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종목을 하나줄 때는, 적어도 물론 배 종류에 따라서 유타페어나 무타페어나 값이 다르겠지만 한 2천만원 간담니다.

학교 자체시설비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논의가 됐었는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무슨 현안사업비니 행정사업비를 줄 수가 있었는데, 중학교 이하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추경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지정되어 2회 추경때나 협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지정학교 운영 지원 문제는, 향후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회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표준교육비에 약 83%를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학교교육비로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할, 학교산출기준상 학교운영비로 내려 온 돈은 전액 다 저희들이 주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돈의 비율은 높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문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면은, 지금 같은 내용도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학교교육비 자체에 표준교육비 이상 상회하도록 주는 방안, 또 기타 지정종목 또 다른 어떤 특별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점차 개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종목별 순회코치를 임용하시는데 그 시간 나는 대로 그 명단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2)

(끝에 실음)

사실 이 코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이번 충북소년체전에도 팀 창단된지 얼마 안 된 그 대미초등학교가 양궁을 휩쓸었어요.

근데 거기 코치 한 분이 유능한 분이 있었는데 정식 코치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분이 갈까 바 학교가 전전궁궁해요, 뭐라도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있다가 오늘, 내일이라도 명단을 주시고 코치를 좀더 많은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아 거기 보니까 됩니까?

추경, 아니 예비비가 백 몇 억이 남았어요. 내년엔 남겨 써야겠지만, 예비비가 아까 보니까 백 몇 억이던데 138억 6,700이나 되는데 그거 좀 풀어서 쓰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우리 이상일 위원님이 체육을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참 저도 사기가 진작됩니다마는, 이것이 진작 사실 순회코치를 늘려야 하는데 해마다 늘리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마는, 제가 역량 부족으로다가 이걸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각 시·도 전부다 순회코치 현황을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데는 386명입니다. 순회코치가, 전남이 216명, 서울이 216명, 저희하고 비슷한 전라북도가 170명, 충남이 130명, 우리하고 이웃도인 강원, 대전, 충남이 100명, 110명, 저희들이 65명이고, 제주도가 57명인데, 이걸 가지고 요번에 협의한 결과 대폭적으로 많이 인상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14명해서 69명에서 울산, 대전하고 같은 레벨로

맞추고, 그 다음에 맞추려면 내년에 한 100명 늘리려고 예상하고 했습니다마는, 대미초등학교도 금년도 7월 1일자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타 시·도와 우리가 소년체전에 가서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상위권 입장을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100명 수준은 하려고 합니다.

각 시대표팀 만큼은 순회코치 전부 주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이 7억 7,825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여장학금을 본인이 대여 받아 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상환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재학중에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자녀가 대부분 해서 사용을 하고, 졸업 후에 거치기간을 거쳐서 상환을 합니다.

● 이상일 위원

대개 거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2년제 졸업생들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구요, 4학년제는 4년에 걸쳐서 상환합니다, 2년 거치 4년 상환.

● 이상일 위원

요거 상환은 제대로 됩니까? 지금 까지 나갔던 거는? 결국은 안 되면 아버지가 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아버지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쓰기는 자녀들이 쓰더라도 부모가 상환을 해줍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청, 본청 시설보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다섯번 올라 왔는데, 다른데도 고쳐야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대충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기 전면 타일을 다 뜯어내고 돌을 붙이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수리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본청 건축물이 22년이 경과됐는데, 위원님들도 주로 여기를 많이 다니시니까 보시다시피 외곽에 타일이 거의 떨어져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타일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위에서 계속 떨어지고, 또 창가가 이것이 79년도 지을 때 당시에 잘 좀 자재가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은 난방시설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많고 이게 잘 다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벽에 타일 쪽으로 비가 오고 그러면 벽으로 좀 물이 습기가 스며들어서 내부적으로 다소 일부분입니다마는,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IMF가 와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우선 순위에서 다음번에 하자 그래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또 지금 상당히 부식화가 좀 심해서 부식정도를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방법은 타일을 지금 전부 다 뜯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신 자재를 이용해서 덧씌우기 정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일을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달리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

아서 얼른 얼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에 74쪽에 보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정책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인적자원 구성이 되면은 자료를 좀 저한테 나중에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자료(별첨 2)

(끝에 실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신설학교 설립에 물론 본청에서도 그 시급함을 알고 계시겠지만, 충주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 탄금초등학교, 칠금초등학교가 거의 포화상태예요. 도저히 증축을 할 수 없고 해서, 가능하면 좀 서두르셔서 금릉초등학교가 2004년에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에 대해서 93쪽에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를 맡은 회사에 부도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지 부진한 학교는 없는지, 혹시 여러개가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설학교 18개교하고 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점사업으로 교실 난방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언제쯤 끝나는지 저기 현재 진행된 완결된데는 얼마고, 금년도 진행되는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완결되는지 그거는 지금 답변 안주셔도 좋습니다.

요거 메모해서 저한테 하나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요거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거기 수변전설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교육용이 따로 있고 심야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 이걸 따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시설과장입니다.

심야용은, 심야용 전력은 밤에 쓰기 때문에 따로 만듭니다.

● 이상일 위원

변전소를 두 개가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이상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회한지 1시간 30분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 관계로 휴회를 하고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제가 한 가지 아까 박진하 위원님께서, 송진하 위원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송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식 신체측정기에 제가 답변을 신장, 체중, 비

만도,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자식 신체측정기는 신장, 체중, 비만도, 척추측만증이 동시에 검사가 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예, 그럼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네, 이제 7년 동안 예산을 서투른 솜씨로 심의라고 해 봤는데, 어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한 4번정도 아니 7번정도, 추경이 한 30번은 넘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제가 잘 모르고 예산에 대해서 참 무리한 감액이나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제 나름대로는 어떤 금액이나 각 항목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분석보다는, 과연 그 예산의 본질이 어떻게 이렇게 까지 편성 내지는 집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우리교육 예산을 정치적인 논리보다 교육적인 논리로 이것이 편성이 되고 집행됐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 저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교육감 되시겠다는

분의 입후보자들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거기에 문항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의 형평성, 두 번째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 그것이 아마 신문사에서 또는 재야에서 관심 있는, 그래서 그 새로 교육감에 입후보하신 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느 입후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집행청에도 있어 왔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다 이거예요. 의식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집행하는 분들의 의식이 바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차별화 된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 또 어떤 견해에서 그랬는지 이번 예산이 무슨 뭐 덩어리다 이런 언론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보더라도 마지막이라 신중하게 훑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면은 적었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님께 꼭 제가 여쭙 보고 갈게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그간에 여기 와 계신지 1년 3개월 계셨습니까마는, 정말 이러한 새로 교육감 되시는 분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곤욕스러워 하지 않고, 우리 집행청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까하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일환 위원님께서 지금 1조 1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상당히 조리 있고 합리적인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면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참교육의 입장에서 건의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예를 들면은, 사학과 공립의 예산의 불균형, 또 사학에서도 사학간에 불균형, 공립은 공립 나름대로의 지역의 불균형,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중학교의 모중목이 지정이 되면서 총없는 총싸움을 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는 유독이 충주 지역의 그 학교 보다 뒤에 개교가 되고 이러한 학교도 다목적교실이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학교는 충일중학교는 벌써 김명식 교장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충북 복싱의 아주 산실입니다.

그런데 연습장이 하나 없어서 계속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시합때에만 했었습

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규모나 학교의 전통도 50여년이 넘는 학교가 어째서 다목적 교실이 하나 없냐 이거예요.

또 어느 사학재단은 그 사학재단만이 아직도 급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새로 오시는 이 교육감님께서는 이 예산문제로 곤욕을 치루지 않고 정말 투명한 예산, 판공비도 공개를 하겠다고 어저께 모두 말씀하셨는데, 정말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예산을 집행할 적마다, 요즘 얼마든지 예산편성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각 학교 시설을 다 압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뭐뭐 해서 자료 착 집 어놓으면, 자 어느 학교에 무슨 시설이 모자라고 어느 학교에 어떤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다 이게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게 어렵겠느냐 제가 언제도 예산심의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령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도 4억 2,000 상당히 있잖아요. 편중되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는 충청

북도는, 아주 과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투자 순위가 있다, 어디는 컴퓨터가 뭐가 몇 대가 있어, 어디는 난방이 학생의 수요나 그 지방의 평균기온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여기가 심야가 먼저 들어 와야돼 하고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충북 교육의 예산을 정말 전국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정말 정보화 쪽으로 해야겠다, 그것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어저께 교육감 되시겠다는 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의지가 문제입니다.

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뒷말을 듣고, 뭐가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뭘 안주겠다, 이런 애매한 얘기를 왜 들습니까?

그러면은 집행하시는 분도 얼마나 자유롭게 떳떳하고, 사립학교도 정말로 규모나 뭐해도 이런 학교가 강당이 지어지는가 하면은, 정말 그 학교보다도 규모나 교육활동에 필요한데도 안지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교육계만의 이거는 아직도 예산에 관한 행정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고있습니다.

그건 뭐 비단 저희 교육청뿐이 아니라 아마 전국이 그럴 겁니다.

두 번째로 투자의 효율성입니다.

투자의 효율성, 이번에 제7차 교육과정 때문에 이제 학교교실을 증축을 하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모학교는 갖은 좁은 운동장에다가 또 방향이나, 학교 전체의 균형이나, 경제적으로 전혀 관계없이 부득이 짓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만히 보니까, 본관이 3층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나 옥탑 처리를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복개식으로 해 놔어요. 우리 개인같으면 말이야, 교육이 불과 3, 4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러한 시설에 이렇게 투자 할 때에는, 만약에 기초 한 5층쯤 앞으로 올릴 수도 있다 기초 조금 더, 모든 기간시설 예를 들어 기초시설을 전부 다해 놓고, 만약에 옥탑을 뜯어도 좋다 했을 때에 준비해 놓고 했으면 4층쯤이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쁩니다.

정말 장기적인 그러한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번에 충북예술고에 뭐가 올라왔어요. 그 학교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정

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의 활용,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은 죄송합니다마는 모두가 질타 받을 일입니다.

수백억이, 지금 예산심의를 해도 집행될려면 아마 빨라도 6, 7월이 되어 될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벌써 1년이 가고, 9월, 10월가면, 대충 얼마쯤 남을까 예상이 안 됩니까?

또 연말에 가서도 또 추경을 했어요.

연말에 가서도, 아 그러면 그런 잉여금이 그래 꼭 지금 벌써 일년에서 4월이래 되가지고 이게 반년이상이나 이게 사장되고 묶여 있어야 되겠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투자의 적기를 잃버린다 말입니다. 적기를 이게 누구의 손해입니까? 몽땅 우리 충북교육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예비비 아까 얼마 나왔습니다마는, 몇%가 적정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훈련하려니까 배 하나 없는데 이런 것 되다가 뭐 하겠습니까? 어디 다 쓴다고 예비비를 두는 겁니까?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그 교육감 후보께서는 의지가 문제라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계신 여기 있는 분들의 제가

마지막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서, 새로 오시는 교육감께서는 정말 충북교육의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다, 이거 제가 매번 짚는데 제가 앞장서고 매번 투덜거립니다마는 그게 농사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그 동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을 제가 사실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서 안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그럴려면은 지금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투자의 순위 이거 하나 작성해 놓으면, 일년은 이렇고, 중장기 3년은 이렇고, 5년은 이렇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 계획이 교육이 백년대계라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없다는 거는 이 건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앞뒤가.

아까 송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익부 부이고 빈익빈 빈입니다.

청원군 죄송합니다. 미원쪽에 예산이 많이 가있어요, 미원쪽에.

그래서 제가 대단히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겠습니까?

이제는 교육감도 판공비 당신이 마음대로 쓸 예산도 공개하겠다는 시대가 왔는데, 예산편성도 저는 좀더 공개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이것을 꼭 좀.....

그 다음에 우리 투자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채를 농협 것을 다 갚았다니까 말입니다. 다 갚았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고이자로 가는 거는 지금 다 갚았고요. 재특만 지금 남아 있는데, 재특이 지금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거를.....

● 조일환 위원

아니 지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재특이 4.51%이고 농협은 7%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뭐 그 문제는 다 갚았다니까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지금 일반 시중은행도 5%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국고채 같은 것은, 얼마든지 과거에 우리가 높은

이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예를 왜드느냐 하면은 이것은 운영의 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좀, 한교조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억 600만원은 순수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서 주는데, 전세를 저희 교육감명으로 해서 전세를 줬다가, 어느 시점엔가는 반환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주지만, 단체가 재정적으로 회원들 회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수별 형평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이제 전임자들하고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회원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조직상 일정한 수만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적인 차원에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6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로 요런 거에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가는 회수할 생각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전교조에 가 있는 돈도 교육감명

의로 임대차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도 투자의 효율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교육기관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청주시내에도 뭐 건물이나 토지가 좀 있는 줄 알아요.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언제 까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산하 우리교육 유관단체가 무상으로 들어와서, 그럼 하나의 교육에 관한 토론의 광장도 되는 겁니다.

이걸 해달란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가는 교육감 명의로 이렇게 됐다니까 제가 재론의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350명 회원 대표도 1억자리를 얻어줘야 되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투자의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김과장님 마침 안가셨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안 갔습니다.

● 조일환 위원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김과장님을 표적으로 삼는 거는 아니에요. 관심 있다 그 얘기로 알아 들으세요.

지금 저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의 중학생들을 제가 수하여행단 현지 지도를 한번 해 본적 있어요.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문화재 관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480명 학생이 1관문에서 3관문 올라오는데 전원이 올라오는데 다섯시간이 걸려요, 다섯시간.

그러니까 먼저 온 아이들은 두시간 뿐이 안걸렸고 뛰어 오다시피한 아이들은 두시간 밖에 안걸렸고, 그리고서도 낙오자가 상당히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체격은 컸는데 체력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아이구 애들이 저래서 되나', 나이 60먹은 나도 세시간이면 충분히 오는데 중학생이 그래요, 중학생이.

그래서 김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느냐 하면은, 특히 우리 충북 교육은 어떤 뭐 국토순례라든지 제가 이래 볼 때는 타시·도에 비해서 그런 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활동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한 이런 것은 상

당히 전국 수준에 능가를 하는데, 이런 일반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우리도 뿐이 아니라 타시·도도 충분히 현재 학생들이 너무 체력이 약해 가지고 문제성이 되어져 가지고, 참 극기훈련이라든지 체육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염려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특히 7차 교육과정에서 들어가서 여고 학생들이 체육선택같은 걸 않고 편하게 미술, 음악같은 걸 선택하고 할 때, 거의 이제 여고 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체육과장 모임에서, 7차 교육과정 개선에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따라 오게끔 해서, 여가선용하든지 극기훈련 하든지 해서 이런 걸 좀 줄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게 뭐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 후손들에 대한 체력을, 점점 이런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게 될 때 정말 걱정이 되고, 우리교육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이에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조일환 위원

시설을 우선하실 때 설게 공모도 하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관리중심의 학교를 설계합니까? 아니면 학생교육 중심의 설계를 합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시설과정 오형균입니다.

지금 설계 자체가 학생중심이죠.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조일환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관리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실을 지어라, 학교를 지어라, 교장실을 맨 귀퉁이로 가야 되요. 교무실이 저 귀퉁이로 가야 되요.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실, 실습실, 과학실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와야 되요. 양호실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와야 되요.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학교가 어떤 모양, 미적, 급식소가 어느 학교에 가보면 본관하고 전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게 학생중심이나, 교장선생님 한 분이 좀 귀퉁이를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여러 학생들이 쓰는 공동의 교육장은 떨어져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제 얘기가 무리입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교사탈의실은 중간에 있는데, 학생들이 쓰는 장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리중심의 학교시설 안 된다 이거죠. 한번 개혁해야 된다 이거죠. 학교 짓는 거 이거는 정말로 요원한 겁니다.

지금 전체 충청북도의 학생 수는 주는 데 학교는 자꾸 지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전망을 못한 거예요. 탄금초등학교를 지을 때에 여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쯤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연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근에 시나 이런데 해 봐서 개발계획 전부 다 따져보면은, 아 여기 언제쯤 또 지으면 되겠다, 그럴려면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 안된 시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탄금도 잘 정말 잘 지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제가 볼 때 버렸어요. 이런 게 아주 단기적인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급식소가 한 중앙에 있습니다, 본관에.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근데 지금 신설학교 하는데는 급식소 같은 거는 대개 중앙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급식소가 변두리에 있는데는 대개 옛날에 지은 학교예요. 들어 갈 때가 없으니까 끄트머리에 들어 가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제가 더 말씀 안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래서 학교의 부족, 교육의 기관을 지을 때는 학생중심으로 지어야죠. 선생님들이 저 귀퉁에서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4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느 학교든 간에 교장, 교무실은 한 센터에 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기에 전산실이 있어야지, 실습실이 있어야지, 과학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좀 양해가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조일환 위원님께서 학교교실 배치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짓는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짓는 학교 중에서 제가와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학교를 본관을 지금 남향으로 하고, 부득이 해서 동향으로 되는 경우는 관리실 쪽을 동향으로 두고, 학생들을 남향으로 배치를 하라는 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학교에 새로운 어떠한 용도로 개편해서 쓰는 경우에는, 부득히 교장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되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재래식화장실하고 급수는 완전해 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재래식화장실을 거의 다 됐습니다.

● 조일환 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개선이 됐어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부득이 한 곳, 지금 몇 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직도 남아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몇 군데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우선하시고 우리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이 바로 정치적인 논리를, 경제적인 논리로 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교육가족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충북교육만은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을 모시고 정말 참 마음을 비우고, 새 부대에 정말 교육적인 논리로 현장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조일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회의 예산편성은 사실은 미묘합니다.

왜 미묘하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4월 30일 교육감 선출이 있는데, 새로운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달만

늦추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나 하면은 첫째, 교육여건개선사업을 7월말에 착공하려고 해서 8월에 골조공사를 어떻게 완성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도 5월 예산심사가 어렵다는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동의로 추경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일면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께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정책적인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요번에 걱정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정책사업을 다 빼고, 가능한 한 시설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예비비에 넣어줬습니다, 일부러.

그것은 새로 오신 분이 뭔가 하고자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실테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넣다보니까 요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저희들 예산이 지금 무계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비전21이라는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도 일부 지역교육청에 치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후도에 의해서

시설사업이 시설카드가 되어 있는 노후도에 의해서 시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학교에 일부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산이 좀 들가는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평가원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교육료라든지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이런 것들로 해서, 전체 학교에 형평성을 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시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년동안 예산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깎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깎아서 예비비에 넣어 주실 걸 왜 깎으시는지, 저도 참 7년동안 참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좀 원만하게 심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일환 위원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금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를 대비한 무슨 투자를 계획을 저도 받아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제가 7차 교육과정을 봤는데, 또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인하하면서 요즘 학교의 신축들을 많이 하고 있어 갖고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바쁩니다. 참 그룹을 지어 갖고서 청주시내 등 이런 곳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갑자기 학교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질의에서도 했듯이, 학교 지을만한 부지가 없는 학교도 몇 개고 있었고, 있다고 해도 보니까 적절한 장소에 짓지 못해 가지고 보면 다 동향, 동서향 앞으로, 어느 곳은 학교 뒤편에 아주 궁벽한 곳에다 교실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걱정하게 요런 곳에 자리를 잘 잡아서 교실을 신축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신설 367억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학생 수,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고려하고, 또 급당 인원을 35명에서 30명으로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를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끔 잡을 수는 없는건지, 만약에 학교를 신설할 때 그 부지가 여기는 A라는 고등학교부지다, B라는 초등학교부지다, 그러면 아주 그 평수가 딱 규정되어 갖고 그 이상은 못 잡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설학교를 지을 때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지금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딱딱 토지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평수가 있는 경우,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할 때부터 우리 김과장님께서 시의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충분히 의사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단히 개발이 안 되는 경우는, 사유지를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적정한 지역을 우리가 골라다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을 사게 되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적도가 정방향이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안되는 경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터를,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 대답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육부에서 준예산을 가지고 쓰되,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지형상 부득이 해서 인근의 부지를 더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요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존의 학교들이 교실 증축하려고 하면 특히 급식실이라던가 기존의 창고라던가 이런 것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부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기적으로도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약 70실 정도를 설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아마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다소 운동장이 부족하더라도 교실을 증축하는 일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신축하는 학교가 보통 상당한 계획 하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당을 한꺼번에 넣지 못합니다.

예산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신설학교가 저희들이 18개교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18개교에 강당을 같이 설계하므로써 부지

의 효율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56억 정도의 납입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1.7%라는 자체 예산 중에는 약 한 4%정도가 이월금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이월금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편성하게 됩니다.

9월달이나 벌써되면은, 관리과장님께서 벌써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는 많은 고민과 함께, 당해 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납입금 관계가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를 올려야 될건가, 그것이 1, 2월 달에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네, 네. 다목적 교실 신축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관심많아 갖고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습니다.

있는 학교는 어느 지역은 전부 국고에서 많이 얻어다가 짓고, 어느 쪽은 없는, 이게 다목적교실을 신축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기 청주시 같은 경우는 경덕이

나 경산이나 이쪽 초등학교나 교육시설이 많은 쪽에 강당이 있는 곳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공동으로 하나 크게 지어 가지고서, 학교마다 그걸 적당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한 학교에 하나 있어야지 되는건지, 그래서 그런 학교들 대개 보면은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교회를 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강당의 효율, 이용효율은 몇 %나 되는 건지 한번 조사를 하시어 가지고서 그 지역에 크게 하나지어 놓으면, 학교에 따라 타임스케줄을 정해 갖고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목적실이 실질적으로 기준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부터 그것을 모든 학교에 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짓다 보니, 이제 우선 순위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몰리는 같이 보이는 것, 아니면 그것이 같은 1, 2년 사이에 특정지역에 많이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목적 강당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성 면에서 한 개라도 지어줘서 여러 기관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미원지역에 1개면인데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학교 강당을 하나 쓰고 하나를 지어 주면은, 그것을 모든 행사 때 같이 공동으로 쓰겠다 이런 기관장님들도 바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나 배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감곡지역에 강당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 쪽의 기관단체장들이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 배려를 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사학 교육여건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학과 국립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사학이 열악하다든지 또는 어느 쪽은 공립이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좋든지 뭐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요즘 사학

에 지원되는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대형 투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몇 %고 재단에서 부담하는 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아니 2000년도까지 만해도 사학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서 상당부분은 10% 정도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법인들의 자체수입을 지원해 줄 능력들이 학교에 지원해 줄 능력들이 열악하고, 그래서 2001년도부터 투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주는거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주는거든, 일단은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국립보다 사립이 투명성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공개 경쟁을 하지 않는데는 저희들이 전부 회수한다는 조건을 걸었더니, 거의 사립학교에도 공개 경쟁 쪽으로 가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 사립학교도 능력이 재정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 권장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2001년도부터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학이, 열악한 사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10%을 투자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시설을 상당히 꺼려하고 또 그걸 그러다 보니까 10% 대응 투자 문제를 다른 방향을 변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성을 방지하고 또 시설투자를 정말 적정하게 잘하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단감독이 억지로 말입니다, 사실 연금부담금이나 또는 의료보험 부담금을 선생님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도 어려운 재단한테는 그 10% 대응투자 하계끔 강요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주 잘 생각해서 시행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준조도를 94% 완료했다고 하는데, 6% 미달된 학교는 어느 학교가 안 된 데가 학생들 눈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6%는 많은 예산도 안들텐데 이게 아직까지 100% 해주지지 안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도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과거의 우리가 기준 조도보다는 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도가 상당히 기준이 높아집니다.

● 위원장 이기수

320룩스까지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염려해서 지금 자라 나는 학생들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도를 빨리 좀 개선을 해 주고자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보통교실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학교의 실습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관리실 쪽에서 직접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를 개축을 해야 되는 대상, 예를 들어서 1, 2년 내에 이걸 도저히 개축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겠다는 데는 저희들이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보통 교실은 거의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간단, 간단하게, 학생흡연 예방교육을 국고 6,000을 전달받아서 대응투자 1억 2,0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겁니까?

요새 금연에 대한 얘기가 매스컴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또 관심도 있고 그

런데.....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선 금연지역 시범학교를 설치하고 각 학교 별로 유능한 강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학교 별로 금연구역을 종합적으로 선포를 2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글짓기대회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학교에서는 담배를 안피우도록,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학교가 현도상업고등학교, 매곡고등학교는 어느 때가든지 담배공초 하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범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차차 저희들 초·중·고 공히 금연을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지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예, 수고했어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HACCP가 4,800만원인데 이거는 한 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중점관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인데, 우선 3대를 사 가지고 청주시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제천교육청,

보은교육청, 괴산교육청에서 실험을 해
봐 가지고 점차 쪽 나가는데 한 대에
1,60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천6백만원씩 3대이면, 그러니까 그거는
뭘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모양.....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나온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위
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걸 보면
거기에 검수보관 초과량도 쪽 나와 가지
고 거기서 그걸하면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기수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기술을 가져야지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하면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거는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청주교육청에서 해 가지
고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면 전체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기수

휴대해서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기계
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게 크지 않고.....

● 위원장 이기수

그게 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참 됩니

까? 음식재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도라
든지 신선도 같은 그런 것을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다면, 이걸 좀 많이 구입해 가지
고 내년예산에는 말입니다.

그거 이 기구로써 전부 검증을 해 가지
고서 학생들을 먹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
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마지막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요거 추경
에서는 넣는데 왜 본 예산에서는 인상분
을 예정 못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7% 인상률
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8.5% 인상됐기 때문에 1.5% 올랐는데 요
거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원증원이 200여명이 되
는데, 이것도 240명 정도 증원됩니다.

그 부분도 추가됐습니다.

● 위원장 이기수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조일환 위원

제가 아까 그거를 따져보는데 예산안을 따져보니, 어느 때 예산보다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셨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이번이 제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길 편리하도록 많은 자료들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가 오후에 속개하고서 1시간이상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4월 26일 10시 30분 제3차 소위원회에서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위 원 송진한,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 별 책 부 록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본회의(별책 1)
-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본회의(별책 2)
- ▶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별책 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4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

議事日程 (제14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광수

아니, 저 의장님, 그 추경에 의해서 우리들이 현장방문을 이틀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어요, 여기서.

● 위원장 이기수

정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계수조정하고 나서 하세요. 말씀하시죠

● 간사 김광수

그게 추경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추경이,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던 말이지요.

● 위원장 이기수

예, 예

● 간사 김광수

계수조정 할 적에 그것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 위원장 이기수

예,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예산관계로 위원님들이 각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후, 사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광수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대단히 고맙기는 합니다. 마는,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서 35명 학생을 기준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교실을 또 증축을 해야지 되는 불가피성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시골학교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시 지역 이상의 학교 같은데는 교실을 지을만한 장소가 아주 마땅하지 못한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증축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참 부적절하게 한 그러한 교실증축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 같은데는 서향집을 지어야 된다면, 또는 어느 학교는 아주 구석에 남아 있는데다가 이렇게 좀 짓는다면, 또는 운동장이 협소하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7차 교육과정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참 찬반여론이 있으면서도 국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참 35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마는, 아직 그런 것이 충분히 준비 안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어느 점으로 보서는 사실상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하나 증설을 해야지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보은 삼산초등학교를 가 봤습니다. 마는, 그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요,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운동장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이게 운동장이 물이 차여서, 질어서, 불가피 배수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오래 전부터 뭐 십여년 전부터 그러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게 보니까 운동장

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다 보니까 교실현관 바닥하고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앞으로 학교를 지을 적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2m 정도 더 높여서 건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은에도 그런 곳이 그런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배수로 공사를 해도 물이 별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밑이, 나가는데가 낮아 가지고서, 거기다 배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속 빠져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나 여기나 운동장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해도 충분하게 배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교실을, 학교를 지를 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추경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인데, 삼산초등학교에 가 보니까 그 복도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사이에 복도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가 한 10cm정도 밑으로 패여서 그게 한 2m는 다 안되겠어요. 1m, 그렇게 패여서 올라 가더라도, 애들이 주르르 내려오다 볼 것 같으면 거기가 자빠질 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는 설계를 할 적에, 그 마루를 그 계단까지 다 놔줄 것 같으면은 애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 설계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하세요.

● 조일환 위원

네,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올리는 건데,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 빼고요. 저는 OECD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급당 인원수가 더 줄어 들거다 이거죠. 그렇죠. 더 줄어들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줄어든다는 건 뭐니까?

단위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야 된다 말이지, 지금도 이게 순리적이 아니고, 동향, 서향 가릴 것 없이 운동장 뭐 어디 가릴 것 없이 막 지어 댔는데, 이제 앞으로 OECD수준은 20명대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갈수록 그저 십년 안가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될 때에는, 우리가 사전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사전에.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탄금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파트 도시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36학급 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도 44학급이란 말이지, 35명을 하면 더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또 난리를 겪고, 제가 제일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도시는 지방자치에 가면은 간단히 물론 산출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0, 20년 후의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할건가, 돈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시설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 기본을 먼저 해 놓으면 그런 일 없겠다, 또 제가 시설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구조가 학생중심, 학습중심으로 되어 달라, 이 얘기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로얄층이 몇 층입니까? 15, 6층 되면 5, 6, 7층이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누가 삽니까? 학생이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또 5층의 로얄이 어디입니까? 2,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 3층은, 그것도 한 중앙에 교장실이나 교무실이 전부 다 차지하는, 이런 관리중심의 우리학교의 구조는 빨리 한번 충청북도만이라도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5층이면 5층, 열을 받는 뜨거운 그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학생들은 거기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와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지금 건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당직들을 안하게 되니까 전부 다 보완 됩니까? 캡슐, 뭐 어디 캡인가요. 뭐예요.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도 몇 년 전에 지은 교실도, 지은 교무실도, 그걸 창호도 이렇게 해서 배선했어 가지고 노출을 시켜서 아직도 그래요 그것도, 뻥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매립을 해서 하면은 애초에 설계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초적인 것이 넉넉하게 터미널을 만들어서 참 관하나라도 묻어서 해 두면은, 그렇게 노출되고 보기 싫은 우리 교육 시설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수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갔다 오신 분들이 질의 하신다든지 하실 말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교·학연계학교 혁신프

로그렘 개발비보조 2,000만원과 2001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7,57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로 편입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1조 135억 2,486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관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폐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기수, 간사 김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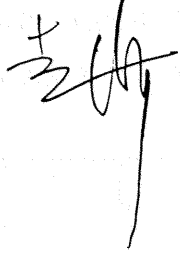
위원 송진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5. .

위원장 이기수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4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02. 4. 22. (월) 본회의 종료후 ~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 '02. 4. 23. (화) 10:30 ~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
| '02. 4. 26. (금) 10:30 ~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 |

(별첨 2)

서면답변서

건 명 : 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2002. 4. 23, 10 : 30)

| 질의위원 | 질 의 요 지 | 관련부서 |
|-------|---|--|
| 이 상 일 | 1. 교과수업개선연구회의 13개 고등학교 교과목은? 2. 도교육청 순회코치 배치 현황 3.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자문교수단 명단 구성현황 → 2002년 하반기구성 예정(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안 국회 상정중) 4.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난방시설 현황 | 중 등 교 육 과 평생교육체육과 기 획 관 리 과 시 설 과 |

덧붙임 : 답변서 3부 끝.

2002.교과수업개선연구회 조직 현황

○ 고등학교 교과 및 중심학교

중등교육과

| 연번 | 교과명 | 중심학교 (회장) | | | | 비고 |
|----|--------|-----------|----|-----|----------|----|
| | | 학교명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1 | 도덕 | 음성고등학교 | 교감 | 김태일 | 872-2148 | |
| 2 | 국어 | 상당고등학교 | 교장 | 박창신 | 294-6141 | |
| 3 | 사회(국사) | 청주여자고등학교 | 교장 | 이양남 | 211-4924 | |
| 4 | 수학 | 충북고등학교 | 교장 | 우활원 | 283-7487 | |
| 5 | 과학 | 충북과학고등학교 | 교장 | 연구탁 | 297-6391 | |
| 6 | 체육 | 충북체육고등학교 | 교장 | 김병연 | 275-0433 | |
| 7 | 음악 | 충북예술고등학교 | 교장 | 홍준표 | 235-6766 | |
| 8 | 영어 | 청주외국어고등학교 | 교장 | 이재훈 | 235-2451 | |
| 9 | 농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 교장 | 정호선 | 256-4902 | |
| 10 | 공업 | 충북공업고등학교 | 교장 | 신규 | 232-0421 | |
| 11 | 상업 | 증평정보고등학교 | 교장 | 김창수 | 836-4384 | |
| 12 | 재량활동 | 중앙여자고등학교 | 교장 | 유청자 | 271-2981 | |
| 13 | 진로·상담 | 광혜원고등학교 | 교장 | 곽광영 | 535-3285 | |

○ 중학교 교과 및 중심학교

| 연번 | 교과명 | 중심학교 (회장) | | | | 비고 |
|----|-------|-----------|----|-----|----------|----|
| | | 학교명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1 | 기술·가정 | 진천여자중학교 | 교장 | 김경숙 | 533-3403 | |
| 2 | 미술 | 오창중학교 | 교장 | 양응환 | 217-2615 | |
| 3 | 특별활동 | 보은중학교 | 교장 | 신경휴 | 544-2617 | |

도교육청 순회코치 배치 현황표

<2002. 4. 25. 현재>

| 지역별 | 학교급별·종목별 배정교 및 순회코치명 | | |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청주시 (26명) 육 상 : 원평초(이승일) 수 영 : 흥덕초(배득한) 야 구 : 석교초(김태형) 테니스 : 운천초(김영필) 체 조 : 율량초(김청기) 농 구 : 남성초(정영덕) 씨 림 : 금천초(김성곤) 유 도 : 흥덕초(문호용) 핸드볼 : 한별초(임재현) 로울러 : 봉정초(이은상) 양 궁 : 교동초(김화영) | 육 상 : 청주동중(사창현) 수 영 : 청주중앙중(조장희) 펜 싱 : 청운중(이상렬) 사 격 : 남성중(신용자) 태권도 : 청주중(김상래) 검 도 : 주성중(배운순) 럭 비 : 청주남중(이승우) 레슬링 : 가경중(주광중) 스 키 : 청주여중(전미라) | 체 조 : 충북체고(마금연) 복 싱 : 충북체고(김성구) 펜 싱 : 충북체고(박종훈) 역 도 : 충북체고(김종오) 야 구 : 청주기공(전대영) 탁 구 : 청주고(김인현) | |
| 소계 : 11명 | 소계 : 9명 | 소계 : 6명 | |
| 충주시 (8명) 배드민턴 : 상남초(김숙향) 테니스 : 예성초(윤만근) 농 구 : 남한강초(이인수) | 육 상 : 충주여중(지용구) 검 도 : 충주중앙중(조문식) | 복 싱 : 충주공고(김성일) 조 정 : 충주농고(유병철) 축 구 : 예성여고(이미애) | |
| 소계 : 3명 | 소계 : 2명 | 소계 : 3명 | |
| 제천시 (6명) 육 상 : 의림초(박용순) 체 조 : 용두초(이미애) 탁 구 : 흥광초(김상기) | 배 구 : 제천중(전상국) 테니스 : 제천동중(김광현) | 하 키 : 제천상고(권창숙) | |
| 소계 : 3명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청원군 (3명) 육 상 : 내수초(맹세일) 양 궁 : 오창초(김점순) | 체 조 : 내수중(김응덕) | | |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 보은군 (3명) 로울러 : 동광초(임보영) 탁 구 : 삼산초(김태성) | 사 격 : 원남중(고상필) | | |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 옥천군 (3명) 농 구 : 죽향초(김규상) 배드민턴 : 청산초(박미숙) | 배 구 : 옥천중(류두희) | | |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 영동군 (2명) 탁 구 : 부용초(박재목) | 육 상 : 영동중(장용수) | | |
| 소계 : 1명 | 소계 : 1명 | | |
| 진천군 (3명) | 핸드볼 : 진천중(이종문) 정 구 : 덕산중(박희운) 하 키 : 진천여중(김윤호) | | |
| | 소계 : 3명 | | |
| 괴산군 (5명) 육 상 : 명덕초(김진룡) 핸드볼 : 삼보초(김도연) 씨 림 : 증평초(최광철) | 핸드볼 : 증평중(연영현) | 씨 림 : 증평공고(최석이) | |
| 소계 : 3명 | 소계 : 1명 | 소계 : 1명 | |
| 음성군 (4명) 육 상 : 수봉초(김상경) | 정 구 : 음성중(조인주) 사이클 : 음성여중(정문철) | 사이클 : 음성고(김전호) | |
| 소계 : 1명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단양군 (3명) 육 상 : 매표초(권화정) 롤 러 : 대강초(오미환) | 사 격 : 단양중(김은산) | | |
| 소계 : 2명 | 소계 : 1명 | | |
| 계 (66명) | 30명 | 24명 | |
| 비 고 | 육상 9명, 체조 4명, 테니스 3명, 농구 3명, 핸드볼 4명, 양궁 2명, 사격 3명, 탁구 4명, 배구 2명, 야구 2명, 배드민턴 2명, 수영 2명, 사이클 2명, 펜싱 2명, 정구 2명, 씨름 3명, 롤러 3명, 하키 2명, 검도 2명, 럭비 1명, 조정 1명, 복싱 2명, 역도 1명, 유도 1명, 레슬링 1명, 태권도 1명, 축구 1명, 스키 1명 (계 28종목 66명) | | |

단방시 설사업 현황

(단위 : 교, 실)

| 급별 | 설립 별 | 단방대상실수 | | | 단방 총실수 | | | 미단방현황 | | | |
|----|---------|--------|----------|-----|--------|----------|-------|-------|-------|---------|-------|
| | | 학교수 | 실수 | 학교수 | 비율(%) | 실수 | 비율(%) | 학교수 | 비율(%) | 실수 | 비율(%) |
| 초 | 공립 | 271 | 6,484.0 | 183 | 67.5 | 5,286.5 | 81.5 | 88 | 32.5 | 1,197.5 | 18.5 |
| | 사립 | 1 | 26.0 | 1 | 100.0 | 26.0 | 100.0 | 0 | 0.0 | 0.0 | 0.0 |
| | 계 | 272 | 6,510.0 | 184 | 67.6 | 5,312.5 | 81.6 | 88 | 32.4 | 1,197.5 | 18.4 |
| 중 | 공립 | 97 | 2,777.5 | 73 | 75.3 | 2,356.0 | 84.8 | 24 | 24.7 | 421.5 | 15.2 |
| | 사립 | 19 | 466.0 | 10 | 52.6 | 275.0 | 59.0 | 9 | 47.4 | 191.0 | 41.0 |
| | 계 | 116 | 3,243.5 | 83 | 71.6 | 2,631.0 | 81.1 | 33 | 28.4 | 612.5 | 18.9 |
| 고 | 공립 | 53 | 2,151.5 | 47 | 88.7 | 1,915.0 | 89.0 | 6 | 11.3 | 236.5 | 11.0 |
| | 사립 | 21 | 924.0 | 16 | 76.2 | 685.0 | 74.1 | 5 | 23.8 | 239.0 | 25.9 |
| | 계 | 74 | 3,075.5 | 63 | 85.1 | 2,600.0 | 84.5 | 11 | 14.9 | 475.5 | 15.5 |
| 특수 | 공립 | 2 | 75.0 | 2 | 100.0 | 75.0 | 100.0 | 0 | 0.0 | 0.0 | 0.0 |
| | 사립 | 7 | 257.0 | 6 | 85.7 | 237.0 | 92.2 | 1 | 14.3 | 20.0 | 7.8 |
| | 계 | 9 | 332.0 | 8 | 88.9 | 312.0 | 94.0 | 1 | 11.1 | 20.0 | 6.0 |
| 합계 | 공립 | 423 | 11,488.0 | 305 | 72.1 | 9,632.5 | 83.8 | 118 | 27.9 | 1,855.5 | 16.2 |
| | 사립 | 48 | 1,673.0 | 33 | 68.8 | 1,223.0 | 73.1 | 15 | 31.3 | 450.0 | 26.9 |
| | 계 | 471 | 13,161.0 | 338 | 71.8 | 10,855.5 | 82.5 | 133 | 28.2 | 2,305.5 | 17.5 |

※ 본고장수(초등학교 31교, 중학교 2교) 포함